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 ‘퀴어’정치의 가능성

## 제주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배 진 희

2019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퀴어’정치의 가능성

## - 제주사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서 영 표

배 진 희

이 논문을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배진희의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8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Possibility of 'Queer' politics

## - Focused on Jeju case

BAE, Jin-Hee

(Supervised by professor SEO, Young-Pyo)

2018.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examiner CHOE, Hyun, Prof. of Sociology

Thesis examiner, SEO, Young-Pyo, Prof. of Sociology

Thesis examiner, KOH, Sungman, Prof. of Sociology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퀴어’에 대한 관심을 정치적 실천문제와 관련지어 논의한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다. 영역과 직책을 가리지 않고 커밍아웃하는 명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퀴어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논문의 관심 주제인 퀴어문화축제도 이러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1969년 반동성애 세력에 저항한 ‘스톤월 인’ 사건을 시작으로, 그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매년 6월이면 세계 곳곳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최초의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서울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0”이다. 2009년에는 대구지역에서도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했다. 2018년인 지금 서울퀴어문화축제는 19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10회를 맞이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2017년에는 전주, 제주, 부산에서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2018년에는 인천과 광주에서 열렸으며 2019년에는 청주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퀴어문화축제뿐만 아니라 ‘퀴어’를 주제로 하는 서적과 학술논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성소수자 이슈는 19대 대선 당시 후보토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을 난감하게 했다. 토론회 이후 몇몇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오늘날 성소수자 이슈는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척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퀴어운동을 주제로 삼은 본 논문의 초점은 정체성의 정치가 가지는 한계다. 동일한 정체성으로 모인 집단의 운동이 다른 집단과 분화되기만 할뿐 연대하지 못하는 것이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체성의 정치가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운동들은 정치적 반격과 대중들의 외면 속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체성 정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정의를 회복하고 권리를 획득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운동의 주체를 등가적으로 묶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오늘날 퀴어이론은 운동의 영역에서 주체를 다각화 한다.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국가 폭력에 반대하고 자원과 정보를 독점하는 소수집단에 저항하는 이들을 퀴어운동의 영역 안에 포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알리고 퀴어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퀴어인들을 종속화하는 지배 규범과 권력에 저항하는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도의 퀴어문화축제는 사회적 약자들 사이의 연대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와 함께 오랜 세월 국가 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제주도민들을 '퀴어'로 상징화하고 제주도민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도와 성소수자는 모두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축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제주사회의 풍습을 접목하여 도민들과의 친근감을 높이려 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주 녹색당의 역할이 컸다. 축제의 조직위원들이 제주 녹색당과 협력하여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도지사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었다. 각각의 후보들은 청년정치, 여성정치, '퀴어'정치를 내세웠다. 그들은 제주지역 퀴어운동을 통해 형성된 '퀴어한 제주'를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제주 녹색당은 도지사와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이례적으로 높은 득표율로 선거를 마쳤다. 더불어 제주 지역 퀴어운동에 함께 동참했던 도내 진보정당들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주 녹색당 이외에도 도내 진보정당들은 퀴어이슈를 문화 영역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았다. 인권과 권리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제주퀴어문화축제와 녹색당의 '퀴어'정치를 지지하고 연대했다.

제주도의 퀴어운동은 퀴어의 이론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과정에서 동원했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 요구를 중심으로 운동을 이끌어 갔으며 지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지지와 퀴어한 연대에 동참한 도내 진보정당들은 제주도의 '퀴어'정치 가능성을 높였다.

**주제어: 정체성 정치, 퀴어운동, 퀴어문화축제, 인정 투쟁, 제주도, 제주퀴어문화축제, 제주 녹색당, 연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 대상 및 방법 ····· 4

1) 연구 대상 ····· 4

2) 연구 방법 ····· 7

(1) 현장 관찰 ····· 7

(2) 자료 수집 ····· 8

(3) 인터뷰 ····· 8

Ⅱ. 새로운 정치로서 '퀴어'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0

1. 인정투쟁: 낸시 프레이저를 중심으로 ····· 10

1) 사회운동의 변화: 경제/문화 이분법 ····· 10

2) 부정의 개선책: 긍정적 혹은 변혁적 ····· 12

3) 정체성 모델의 대안: 지위 모델 ····· 14

2. '퀴어'의미의 확장 ····· 16

1) 퀴어정치의 이론적 부상/맥락 ····· 17

2) 퀴어정치의 운동적 계기들 ····· 23

Ⅲ. 한국 퀴어운동의 양상 ····· 27

1. 한국 동성애 운동과 퀴어운동 ····· 27

2. 한국의 반퀴어 운동의 양상: 퀴어문화축제 반대 운동 사례 ····· 30

3. 제주지역의 퀴어운동 ····· 35

1) 제주퀴어문화축제 ····· 35

(1)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퀴어문화축제 ····· 35

(2) '탐라는 퀴어': 제주도의 역사와 퀴어 ····· 44

2) 제주의 '퀴어'정치 ····· 4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제주도 퀴어운동의 전개 ····· 47
(2) 제주 녹색당의 '퀴어'정치 ····· 51

Ⅴ. 결론 ····· 58
참고문헌 ····· 62
Abstract ····· 6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표 목 차

<표 1> 인터뷰 대상 ····· 9
<표 2> 긍정적 개선책과 변혁적 개선책 및 재분배와 인정을 기준으로 한 사회상 정리 ····· 13
<표 3 > 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전체일정 ····· 36
<표 4 > 2018년 7월 14일 서울퀴어퍼레이드 프로그램 ····· 36
<표 5 > 2018년 대구퀴어문화축제 전체일정 ····· 36
<표 6> 2018년 6월 23일 대구퀴어문화축제 프로그램 ····· 37
<표 7 > 2018년 전주퀴어문화축제 프로그램 ····· 37
<표 8 > 2017년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프로그램 ····· 37
<표 9 > 2018년 제주퀴어문화축제 전체일정 ····· 38
<표 10 > 2018년 제주퀴어문화축제 프로그램 ····· 38
<표 11>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사업 내용 ····· 50
<표 12>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지역사회 및 각종 연대 활동 내용 ····· 51
<표 13>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녹색당 성소수자 정책 ····· 53
<표 14>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녹색당 성소수자 정책 ····· 5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그 림 목 차

<그림 1> 인천 북광장 반대세력에 고립되어 있는 축제 참가자들 ····· 32
<그림 2> 인천퀴어문화축제 반대 인천퀴어반대 대책본부 기자회견 ····· 33
<그림 3> 인천퀴어문화축제 반대 시위 ····· 33
<그림 4> 인천퀴어문화제 반대 현수막 ····· 34
<그림 5>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 현수막 ····· 34
<그림 6> 제1회 전주퀴어문화축제 반대 피켓 ····· 35
<그림 7> 서클댄스 광경 ····· 39
<그림 8>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포스터 ····· 39
<그림 9> 제주대학교 퀴어동아리 퀴어움QUTE 교내 퍼포먼스 ····· 50
<그림10> 제주 녹색당 지방선거 출마선언 모습 ····· 5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Ⅰ. 서론

##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후보로 나왔다. 정치 초보, 부동산 백만장자라는 타이들을 갖은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의 이단아로 불리며 새롭게 떠오르는 정치가였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 퍼스트레이디, 국무장관을 역임하면서 경험 많은 정치인으로 비치며 유력한 대선 승리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한겨레 신문>은 트럼트의 당선을 두고 새로운 '화이트 표퓰리즘'이 급부상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스트와 유럽에서 떠오르고 있는 극우 정당과 반이민자주의에서도 엿볼 수 있듯, "기존 서구 사회에서 주류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백인 집단의 붕괴"가 이번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다(한겨레, 2016.11.10.).

쇠락한 제조업 지역인 러스트 벨트 내 백인 유권자들과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의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남성들의 트럼프 지지가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국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세계화로 인해 미국 내 산업시설들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백인 노동자들은 값싼 일자리를 두고 이민자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전략에 잃어버린 일자리와 경제회복을 꿈꾸며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다. 트럼프의 조악한 인종주의 및 성차별주의적 언행과 자국중심의 방어적 무역정책, 반이민자 정책 등은 그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언행은 기존 엘리트 정치에 신물이 나 있던 대중들과 동질감을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슬라보에 지젝(Slavoj zizek)은 미국 대선이 있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LGBTQ+[1] 즉 성소수자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를 장식하던 때였다고 그 당시를 회상한다. 사회 전반에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전형적인 남성 백인 우월주의 정체성이 승리를 거둔 이번 미국 대선은 정체성 정치의 발전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한국에서는 어떤 정체성 운동과 그로 인한 정치적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특정 정체성을 대상으로 한 정치 운동이 크게 힘을 얻을 수 없었다. 미국과 달리 아직까지는 민족적으로 단일하다는 견해와 다수의 정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보다 기존 시대착오적 정치 의제만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LGBTQ+와 여성, 장애인, 외국인, 난민 등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이슈가 되고 있을 뿐 아직 정치 전략 요소로서 또는 필수 개선 정책으로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치 영역과 다르게 사회 문화 영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약자를 주체로 하는 사회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메갈리아> 활동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분야를 막론하고 폭로되고 있는 성폭행과 성희롱 등 남성 권력에 대항하는 미투운동이 한창이다. <메갈리아>는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남초 사이트인 <디시인사이트>에 대적하여 남성을 향해 미러링을 시도하였다. 미투운동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사회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여성혐오에 문제를 제기한다.

난민 문제는 갑작스럽게 닥쳐왔다.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 유럽 전역으로 난민이 유입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로만 접했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하면서 난민이 유입되었다.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에 머물던 예멘 난민은 조금 더 나은 환경이었던 한국, 특히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수가 561명이었다. 그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슈가 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

1) 1) LGBTQ는 다음의 성정체성을 의미한다. Lesbian(레즈비언), Gay(게이), 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성전환자), Queer(퀴어) or Questioning(성정체성을 아직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LGBTQ 외 다양한 성정체성을 '+'라고 표현한다. Intersex(간성), Allies(성소수자는 아니지만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자), Pansexual(범성애자), Asexual(무성애자) 등이 있다(출처:BBC, 2015.06.2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급히 예멘인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다. 국민은 '예멘 난민을 거부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통해 이슬람 혐오와 민족주의를 드러냈다. 5일 만에 20만 명이 동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가짜 뉴스는 예멘 난민을 두고 온갖 루머를 조장하여 대중을 선동했다.

불평등에 저항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들이 법적 투쟁과 집회 및 청원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성소수자 운동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저항을 이어갔다. 대표적인 성소수자 운동이자,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바로 그것이다. 퀴어문화축제는 축제의 형식을 빌어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축제 당일만큼은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모여 차별 없는 세상을 외쳤다.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퀴어문화축제는 2018년 서울 및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그리고 청주에서 개최되었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지역은 2017년, 2018년에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최근에서야 확산되고 있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일까.

올해 한해만 해도 '퀴어'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한 서적이 다수 출간 되었다. 『섹슈얼리티 지리학 - 페미니즘과 퀴어 지리학의 이론, 실천, 정치』(2018), 『퀴어 아포칼립스 - 사랑과 혐오의 정치학』(2018), 『 페미니즘을 퀴어링!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페미니즘 이론, 실천, 행동』(2018), 『조선의 퀴어 - 근대의 틈새에 숨은 변태들의 초상』(2018) 외에도 <공간환경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공간과 사회』 2018년 3월호도 '퀴어와 공간의 관계 재구성'을 제목으로 내 걸었다. 여성학, 인권, 민주주의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퀴어'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정작 한해에 1권의 퀴어관련 서적이 나올까 말까 했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2018년에는 퀴어를 전면에 내건 책들이 부쩍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퀴어가 대두되기까지 역사적 고난이 없지 않았다. 1990년대 초기 퀴어가 대두되던 당시 퀴어가 가진 의미로 인해 페미니즘과 게이, 레즈비언 집단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유는 퀴어가 정체성의 탈안정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그간 페미니즘이 대변해 왔던 여성, 게이와 레즈비언 집단이 각각 대변해 왔던 성소수자 정체성이 가졌던 절대적 위치를 부정하는 퀴어는 집단을 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회운동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유독 퀴어운동이 부각되는 이유는 많다. 그중 몇 가지만 들어 본다면, 가장 먼저 섹슈얼리티 즉 사적 영역이라고 치부되어왔던 성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 때문이다.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우려는 대중들의 이목을 끈다. 반면 보수기독교의 동성애 반대세력으로 인한 빈번한 충돌로 인해 메스컴에 오르내리는 것 또한 이슈화의 큰 몫을 차지한다.

다른 이유는 퀴어운동이 참여자의 경계를 허문다는 점에서 사회운동 내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데 있다. 페미니즘, 게이, 레즈비언 집단과 비교하여 퀴어는 퀴어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참여가 활발하다. 대신 그들은 성소수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정상'에 도전한다. 따라서 퀴어운동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권력 자체를 향한 저항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던 집단들을 한자리에 모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정체성 운동이 분리주의를 야기한다는 논란에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 내에서 갖는 함의가 적지 않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퀴어이론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퀴어이론과 운동은 그것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퀴어운동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시도들이 한국적 퀴어를 논하는 새로운 장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퀴어가 이슈화 되고 있는 현재 맥락에서 퀴어운동의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제도개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정체성 운동의 대안으로서 퀴어운동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던 이론적 근거를 찾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퀴어운동의 성격을 살펴보고, 나아가 '정치'영역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미국의 게이·레즈비언 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정체성 정치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퀴어의 부상을 전제로 하여 본 글을 전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해 나갈 것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현재 퀴어의 의미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후기구조주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오늘날 한국에서 퀴어이론의 위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의 퀴어연구자들의 논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퀴어가 게이·레즈비언 운동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기존 역사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퀴어이론과 운동에 집중할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주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최근까지도 제주도내 퀴어운동은 가시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7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2회에 걸친 제주퀴어문화축제 이후 퀴어운동이 증가하였으며 보기 드물게 퀴어를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제주지역 역사·문화에 남아있는 퀴어함이 '퀴어'정치의 출현을 낳았다고 보고 제주지역성과 퀴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퀴어문화축제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2회에 걸친 제주퀴어문화축제의 경우 다른 지역 축제와 비교해 볼 때 독특성을 갖는다. 이는 축제 구성과 관련이 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축제보다는 잔치의 구성적 형식을 취하고자 했다.

본래 잔치는 축하를 계기로 음식을 마련해서 손님을 불러 여러 사람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노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8.10.02.). 나아가 일회성 행사의 의미를 넘어서는 잔치문화는 인간이 관계 맺는 또 다른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정립하고 풀어내는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8.10.02).

잔치에서는 임금과 신하, 주인과 머슴에 이르는 인간의 사회적 상하 관계가 추상화되어 사람들은 격의 없이 하나가 된다. 오늘날의 잔치는 그 모습과 성격이 다양하여 앞선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잔치는 사람들을 어우러지게 한다는 것은 현재에도 확인할 수 있다. 잔치는 사회, 문화적으로 동등하지 못했던 가치 패턴이 일시적으로 허물어지는 장이다.

제주퀴어문화축제가 보여준 잔치로서의 퀴어운동은 퀴어 및 일반 참가자 사이에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로 간의 연대형성을 축제의 주요 목표로 하였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제주퀴어문화축제를 사회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연대형성의 장으로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제주도의 퀴어운동의 하나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 녹색당이 보여준 '퀴어'정치를 분석하였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들은 지방선거 시기와 맞물려 진보정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뤄냈다. 그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퀴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는 제주사회의 역사·문화에 대한 통찰이 있어 가능했다.

먼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제2회 축제의 슬로건으로 '탐라는 퀴어'를 내걸었다. 다른 말로 '제주는 퀴어'라는 의미의 슬로건은 퀴어와 제주 사회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제주도는 탐라 부족의 독립국가였으나 "고려 태조 때 성주 고자견이 태자 말로를 고려에 입조시키기 시작한 후부터 양국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두 나라가 대등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탐라국은 고려 중앙정부의 체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김영돈, 2000:312). 그 결과 고대 및 중세 제주는 대단한 해양력을 자랑하는 독립된 국가였지만 중앙정부 체제하에서 주변부 위치에 놓인다.

> 조선조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 제주에 1목(牧) 2군(郡)을 설치하였고, 행정은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가 관장했다. 일제 통치 기간에도 경찰서장이 도사를 겸하여 경찰 체제 행정을 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제주도는 전라도에 부속되면서 행정의 예속화가 심화되었다. 더구나 일제 말 제주는 군사 전략기지로서 일본군 38군단 병력이 들어와 주둔하면서 군사요충지가 되었다.
>
> 해방 이후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에 의해 발발한 제주 4·3사태는 도민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육군훈련소가 설치되고, 많은 피난민들이 입도함에 따라 전통적인 제주문화가 급격하게 변모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전략으로 관광개발이 중심 산업이 되면서 제주의 변화는 더욱 가속되었고...(현길언2001:13)

현길언(2001)은 앞서 살펴본 제주의 상황이 제주역사와 문화양식이 부분적으로나마 중심부 지향성과 동시에 그에 맞서는 분리주의적 요소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성향을 여러 변란과 전설 민속 문화 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삼별초 항쟁, 길운절과 소유덕의 변란, 양제해 모반사건, 방성칠난을 통해 다시 한번 탐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주설화와 무속 본풀이에 나타난 분리주의적 성향의 공통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이 전설들의 공통점은 제주에서 태어난 뛰어난 인물은 모두 중앙 정부의 술책에 의해서 몰락한다는 것. 이 전설에서 제주 사람은 '제주'를 '중앙정부'에 상대되는 변두리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육지, 대국 중앙정부와 제주의 관계는 늘 팽팽하게 맞서있었다(현길언, 2001:12).

흥미로운 건 본토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전설들이 제주도에서는 위와 같이 다른 결말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제주 지역민들이 본토와 비교했을 때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억압과 폭력적 통치에 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제주 녹색당의 '퀴어'정치는 지역의 퀴어성을 제주 맥락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도민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관 주도의 난개발로 공동체 파괴와 주민의 삶의 질 악화 등 다양한 이슈들이 퀴어 맥락과 맞닿아 있다. 또한 역사·문화적 접근법은 도민들이 '퀴어'용어에 보다 친근감을 갖게 하여 퀴어운동을 지역화하는데에도 일조했다. 이런 점을 이유로 제주 녹색당의 '퀴어'정치 상황과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 2) 연구 방법

#### (1) 현장 관찰

연구목적인 '퀴어'정치의 가능성, 특히 제주지역의 퀴어운동 내 '퀴어'정치의 맹아를 찾고자 필자는 제주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퀴어관련 행사에 참석하였다.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였으며 스텝으로 참석하여 혹시 모를 반대세력과의 충돌 상황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밖에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 해산 및 개회선언식,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소수자 인권 간담회', 제주대학교 퀴어동아리 퀴어운 QUTE의 대동제 퍼포먼스 현장에 참석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퀴어운동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퀴어에 대한 인식과 퀴어문화의 경향을 파악하기위해 퀴어 관련 컨텐츠가 집약적으로 재현되는 제1회 전주퀴어문화축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그리고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을 참석하였다.

### (2) 자료 수집

관련 사진과 내용의 출처는 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될 당시 필자가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 더불어 각종 언론 매체의 기사와 SNS에서 다뤄진 퀴어문화축제 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퀴어문화축제는 아우팅의 우려로 사진촬영이 조심스러우며 무단 게재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축제 참가자의 얼굴을 모자이크하여 사용하였으며 보다 많은 사진이 필요할 경우 퀴어문화축제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와 사용했다.

그러나 본 글이 인터뷰나 현장 스케치를 중심에 두기보다, 퀴어문화축제의 운동 성격과 방향에 집중함에 있어 주최 측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기자회견문과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한 경우가 많다. 제주 녹색당의 지방선거 분석 과정의 경우 TV 토론회 영상, 녹색당 고은영 도시자 후보의 SNS 글, 언론 보도를 수집하여 작성하였다.

### (3) 인터뷰

인터뷰는 제주퀴어문화축제 참석자 및 제주 지역 내에서 퀴어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를 대상으로 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참석자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과 개인 참가자로 나뉜다. 제주 지역 내 퀴어운동 활동가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과 제주대학교 퀴어동아리 퀴어움QUTE의 회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터뷰는 1시간~2시간 이내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증거로 사용되었다. 부득이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 인터뷰 대상

| 이름 | 총 면담 시간 | 비고 |
|---|---|---|
| 김기홍 | 약 2시간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
| 안재홍 | 약 30분 | 제주 녹색당 사무처장 |
| A | 약 1시간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
| G | 약 1시간 | 개인 참여 |
| D | 약 2시간 | 제주대학교 퀴어동아리 퀴어움QUTE |
| H | 설문지 대체 | 개인 참여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Ⅱ. 새로운 정치로서 '퀴어'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인정투쟁: 낸시 프레이저를 중심으로

### 1) 사회운동의 변화: 경제/문화 이분법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 2016)는 오늘날 차이 인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운동을 '포스트사회주의'의 맥락으로 파악한다. 사회주의는 계급을 중심으로 한 재분배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이해관계', '착취', '재분배'와 같은 용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주의적 상상력은 쇠락을 맞았다.

> 한때 정치 논쟁의 주된 문법이었던 분배의 언어는 오늘날 좀 시들해졌다.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단하게 자원과 부의 동등한 배분을 요구했던 운동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이 평등주의에 계속적으로 가하는 수사적 공격, 믿을 만하고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 모델의 부재, 그리고 지구화에 직면하여 널리 퍼지고 있는 국가-케인스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생존 능력에 대한 의심 등으로 인해 재분배 운동은 상당히 축소되었다(프레이저, 2016:203).

따라서 계급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정치 운동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사회 정의를 '차이 인정' 요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집단들이 대체하였다. 인정의 요구는 21세기에 와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제기되어 왔던 요구 방법이기도 했다. 주로 계급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이끌어나갔던 마크스주의자들에 반대하여 나타났다.

서영표(2017)는 마르크스주의적 패러다임부터 포스트모더니즘 관점 내에서 출현한 사회운동이론의 궤적을 좇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적 패러다임은 민중 운동을 혁명과 결부시켰으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복을 목표로 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 패러다임을 통해 우리 시대의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 다수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운동의 기원을 경제적 모순으로부터 도출하며 운동과 혁명을 오직 계급을 통해서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 대립하고 있으며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이라는 도식이 그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를 계급지배의 중심으로 보고 혁명을 위한 투쟁의 에너지가 국가를 향하도록 한다(서영표, 2017:107).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패러다임은 1960년대 이후로 나타난 국가로부터 거리를 둔 지역적이고 장소 특정적인 다양한 사회운동의 동학과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의 경우 사회운동의 변화는 1960년~70년에 진보좌파 비평 및 사회운동의 급증과 확장으로 여러 집단의 연대를 이루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출현한 게이·레즈비언 해방운동, 환경운동, 페미니즘운동, 반제국주의 운동은 평등의 권리를 주장하며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회운동들은 여전히 재분배 문화로 개념화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공유하고 있었다(두건, 2017:31).

1970년대 이후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 운동은 그 맥락이 조금 달랐다. 크게 증대한 환경, 평화, 여성, 반핵, 반문화, 녹색당 운동 등 기존의 사회운동 영역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운동의 형식이 등장하는데 이른바 '신사회운동'이라고 명명됐다. 구신사회운동은 전통적으로 기존의 사회운동이 분배구조의 개선과 소유 관계의 개혁을 통한 물질적 진보를 주요 목표로 추구해 왔다면, 신사회운동은 이런 물질적 진보를 거부하는 해방적 자율성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참여연대, 2018.10.24.).

이러한 사회운동은 오늘날 '정체성 정치'로 불리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프레이저(2017)는 문화적 지배가 착취 즉 마르크스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계급에 따른 재분배를 대신해 근본적 부정의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이렇게 문화적 인정은 부정의의 개선책이자 정치 투쟁의 목표로서 사회경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 재분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프레이저, 2017:24).

프레이저는 오늘날과 같이 정체성 모델이 재분배의 자리를 대신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극단적 정체성 정치의 형태가 어떠한 재의미화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 첫째로, 공격적으로 팽창하는 자본주의가 급진적으로 경제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경제 지구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바로 그 때문에 재분배에서 인정으로의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정의 문제는 재분배 투쟁을 보완, 복잡화, 풍부화하기보다 이를 주변화, 퇴색화,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를 대체의 문제라고 부를 것이다. 둘째로, 오늘날의 인정 투쟁은 초문화적 상호작용과 소통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투쟁은 증가하는 다문화적 맥락 내에서 괄목할 만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다는 집단 정체성을 극적으로 단순화하거나 물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인정 투쟁은 오히려 분리주의, 편협성과 쇼비니즘, 가부장제와 권위주의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를 물화의 문제라고 부를 것이다(프레이저, 2016:204)

### 2) 부정(Injustice)의 개선책: 긍정적 혹은 변혁적

프레이저는 부정의에 대한 모든 투쟁은 적절하게 이해된 경우라면, 재분배와 인정 모두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다고 본다. 인정과 재분배가 분석적으로 구분된 지형 내에서 그에 맞는 개선책을 제시한다. 프레이저의 이러한 이원론적 방법은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 아이리스 매리엔 영(Isis Marion Young) 등의 학자로부터 문제를 양극화하여 추상화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발견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자신의 부정의 논의를 이어간다(프레이저 외, 2016:27).

그녀는 학문적인 정의를 위해 '인정'과 '분배'의 영역을 분석적으로 나누어 각각의 개선책을 제시한다. 분배의 부정의가 일어날 경우를 '사회경제적 부정의'라고 하며 주로 착취, 경제적 주변화, 박탈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다. 인정의 부정의가 일어날 경우는 '문화적 혹은 상징적 부정의'라고 하며 문화적 지배, 불인정 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리고 경시가 일어날 때를 그렇게 부른다(프레이저 외, 2016:28-29).

프레이저(프레이저 외, 2016:34) 본인은 문제를 구분하여 이들 간의 갈등을 검토하는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재분배 주장과 인정 주장이 동시에 추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호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재분배-인정 딜레마가 자주 발생한다. 즉 오늘날의 개인은 분배와 인정의 부정의를 모두에 의해 손해를 입는 이가적 집단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개선의 요구 또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집단의 양가적 성격 외에도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정치적 삶의 복잡성을 생각한다면 사회운동의 내·외부에서 문화적 변화에 대한 요구와 경제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뒤섞여 나타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거기에 더해 프레이저(프레이저 외, 2016:49)는 부정의에 대한 긍정적 개선책 혹은 변혁적 개선책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불평등한 결과를 창출하는 근저는 손대지 않고 그 틀은 유지한 채 만들어지는 결과를 교정하는 방법을 긍정적 개선책이라고 한다. 반면 변혁적 개선책은 불평등을 만드는 틀은 재구조화함으로써 결과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 구분을 사용하는 정치 전략의 최선은 서로를 최소한만 방해하는 방식으로 인정 주장과 재분배 주장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표 2> 긍정적 개선책과 변혁적 개선책 및 재분배와 인정을 기준으로 한 사회상 정리

| | 긍정 | 변혁 |
|---|---|---|
| 재분배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br>-기존 집단에게 존재하는 재화를 표면적으로 재할당<br>-집단 분화 유지<br>-무시 창출 가능성 있음 | **사회주의**<br>-생산관계의 심층적 재구조화<br>-집단 분화의 희석화<br>-몇 가지 형식의 무시를 개선하도록 도울 수 있음 |
| 인정 | **주류 다문화 주의**<br>-기존 집단들의 기존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표면적으로 재할당<br>-집단 분화 유지 | **해체주의**<br>-인정 관계의 심층적 재구조화<br>-집단 분화의 탈인정화 |

자료: 프레이저, 201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프레이저(프레이저 외, 2016:49)는 해당 글에서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를 예로 들어 최소한의 방해관계를 갖는 개선책이 무엇인지 따져보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주의와 해체주의의 조합이 다른 대안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개선책의 대상은 복합성을 갖는 이가적 집단이 대부분이는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불이익 집단을 포괄할 수 있기에 이중적 변혁적 접근 방식이 실천적으로 우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둘째로 복수의 영역에서 이가적 성격을 띠는 집단이 많이 있다고 보았다. 게이 노동자, 여성 흑인이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부정의의 축들이 서로를 가로지르고 있음을 인식"하는 한 복잡성을 해결하는 근본적 재구성을 주장하는 변혁적 개선책이 더욱 들어맞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프레이저는 사회주의와 해체주의의 조합은 "연합의 형성을 가장 잘 촉진한다"(프레이저, 2016:67)고 보았다. 이는 긍정적 개선책의 주된 문제로 나타나는 분화 및 분리주의를 피할 수 있고 표피적 문제 해결로 발생하는 재낙인 효과 또한 차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정과 분배 문제를 변혁적 개선책으로 해결할 경우 차이의 정치가 한쪽으로 복합적 사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치적 패러다임일 수 있다고 본다. 프레이저는 퀴어이론을 통해 변혁적 개선책의 실제 모습의 윤곽을 제시한다. 즉 성별 이분법을 생산하는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정체성을 탈안정화하는 것을 개선책으로 하는 퀴어이론이야 말로 오늘날 정체성 정치가 야기한 분리주의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3) 정체성 모델의 대안: 지위 모델

재분배의 자리가 정체성으로 대체되고 정체성운동의 인정추구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침에 따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물화는 집단의 분화를 강화했다. 따라서 오늘날 정체성 모델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대안이 필요하게 됐다.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정체성 모델을 폐기하거나 재분배 모델로 대체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그간 정체성 운동들은 인종차별, 성차별, 식민화 그리고 문화영역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꾸준히 진행했고 의미 있는 성과들도 이뤄냈다. 그리고 여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히 특정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의 성과도 많다.

프레이저는(2016) 인정 투쟁에서 분리주의나 폐쇄적 소수 집단의 고립화를 촉진할 뿐인 정체성 모델을 '지위'의 문제로 다루고자 한다. 즉 인정을 사회적 지위의 문제로 다루자는 것이다.

> 인정을 지위 문제로 보는 것은 제도화된 문화 가치 패턴들이 사회적 행위자와 관련된 위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제도화된 문화 가치 패턴들이 몇몇 행위자를 열등하고 배제되며 전적으로 다른 것 혹은 단순히 비가시적인 것으로 구성한다면, 그때 우리는 무시와 종속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지위 관점에서 볼 때 무시는 정신의 기형화나 독자적 문화 손상이 아니다. 여기서 무시는 제도화된 사회적 종속 관계이다(프레이저, 2017:211-212).

지위 모델은 차이의 인정을 요구하는 집단의 목적을 정체성 강화가 아닌 종속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따라서 차이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제 혹은 무시를 해소하고 참여자 누구나 평등한 위치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온전한 사회적 파트너"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다시 말해) 인정 주장은 참여 동등을 방해하는 문화 가치 패턴들을 탈제도화하고, 그 자리에 참여 동등을 장려하는 패턴을 둘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무시를 시정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좀 더 특별하게는 이와 관련된 모든 제도적 현장에서 참여 동등을 방해하는 규제적 상호작용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프레이저, 2016:213)

나아가 프레이저(2016)는 인정 투쟁을 지위 모델로 해석하면서 인정의 문제를 좀 더 큰 사회적 틀 내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무시에 의한 부정의가 문화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와 문화라는 차원은 서로의 자리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는 독보적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와 인정이 서로 말끔하게 분리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지위 모델에서 두 차원은 서로 뒤얽혀 있으며 서로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수입 분배와 같은 경제 쟁점의 근저에는 인정의 맥락이 뒤얽혀 있다...반대로 인정 쟁점은 근저에는-가령 미적 가치판단의 근저에는- 분배의 맥락이 놓여있다. 즉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들면 예술 작업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종속은 악순환 될 수 있다. 여기서 지위질서와 경제 구조는 서로를 침범하고 강화한다(프레이저, 2016:218).

결과적으로 참여 동등을 이루기 위해 두 차원, 즉 인정과 분배가 함께 고려될 때 종속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해결책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위 모델은 인정과 분배라는 문화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체성 모델의 대체와 물화로 드러나게 된 문제의 상황을 누그러뜨린다. 그리고 다시금 평등의 정의에 다가간다.

## 2. '퀴어'의미의 확장

프레이저는 자신의 글에서 부정의의 개선책을 제시한다. 근본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그 틀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긍정적 개선책이 있다. 반대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여 재구조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변혁적 개선책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인정과 분배의 평등을 획득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변혁적 개선책을 택한다.

필자가 여기에서 퀴어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변혁적 개선책의 예로 퀴어이론이 거론된 데에 있다. 프레이저는 퀴어이론과 정체성 정치가 선택한 서로 다른 개선책에 대해 논한다. "오늘날의 게이 정체성 정치는 게이와 레즈비언 정체성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동성애 혐오와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한 변혁적 개선책을 차용하는 퀴어이론은 근본적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다(프레이저, 2016:51). 즉 동성-이성애 이분법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분법의 해체는 규범을 지배하여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소수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보편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퀴어운동은 비정상이라 불리는 개인들의 응원을 받는다. 즉 주변화, 타자화, 병리화 되는 외국인, 장애인, 난민, 여성, 가난한 자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퀴어의 행보는 오늘날 정체성 정치가 야기하는 집단의 분화 경향을 극복하는데 한 발짝 다가간다.

결과적으로 '퀴어'정치는 현실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조금은 정체된 페미니즘, 게이, 레즈비언 운동뿐만 아니라 장애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만드는 '권력'에 저항하는 장애학 연구자들에게 퀴어는 선제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그 의미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퀴어는 다른 집단에 비해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다. 이는 1990년대 나타난 새로운 이론으로서 퀴어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 운동으로 표출된 내용 외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교차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퀴어이론은 철학, 사회학, 심리학, 생물학 등 학제 간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전문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대중과 가까이 있지 못했다. 그리고 여전히 퀴어의 역사적 맥락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학문적 역량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크게 역사적 두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후기구조주의 맥락에서 활발했던 '주체'에 대한 논의와 에이즈 위기를 통해 게이, 레즈비언 및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을 새로운 주체로 재구성해야 했던 상황에 초점을 맞추겠다.

### 1) '퀴어'정치의 이론적 부상/맥락

퀴어는 1990년대 초기에 대중화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상한', '수상한', '괴상한'이란 뜻을 지닌 형용사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서구 영어권 국가에서 이원적 성별 규범과 이성애 제도를 거스르는 사람을 경멸조로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다(푸아, 2016:89). 반면 조지 천씨(George Chauncy)는 "1910년대와 1920년대까지 여자 같은 자신의 젠더 지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성애적 측면에서 자신이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고 여겼던 남자들이 자신을 '퀴어'라고 불렀다"고 본다(야고스, 2017:120). 퀴어의 연원을 두고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퀴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 사용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며 몇몇 사료를 통해 유추해 보는 정도이다.

퀴어이론은 20세기 후기구조주의의 영향 아래 지금의 모습에 가까워졌다. 애너메리 야고스(Annamarie Jagose)에 따르면 "'퀴어'는 단순히 동성애적 욕망을 초역사적으로 설명하고 구성하는 일련의 용어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른바 어떠한 보편적인 개념이든 그것을 문제 삼는 구성주의의 결과다"(야고스, 2015:121). 특히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루이 알튀세르(Louis Pierre Althusser),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이론을 통해 '정체성' 개념이 급진화 된 모습으로서 '퀴어'가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주체의 가능성 또는 정체성의 일관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기존 정체성 정치를 구성해온 집단적 특수성의 가능성에 질문을 던진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드는 그 주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로 지시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즉 주체의 일관성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무의식 이론을 통해 던진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인간은 의식하지 못하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주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주체가 온전하고 자각적이라는 상식의 관념에 반해 주체성이란 반드시 학습되어야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야고스, 2015:128). 따라서 주체성은 자신에게 있는 본질적 자질이 아니라 자신 밖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렇게 외부와 교류를 통해 주체는 나와 그 밖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정보를 습득하면서 변화 가능한 정체성을 주장한다. 그 결과 정체성은 진행 중인, 항상 미완성 상태의 과정이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프로이트가 무의식 이론을 통해 일관된 주체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면, 맑스주의 이론가 알튀세르는 역사적 현재의 관점 속에서 자본주의의 사회-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매커니즘을 분석한다. 그는 "어떤 특정한 결과가 사회로서 기능하게 되는 메커니즘,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고유한 사회 효과(society-effect)를 생산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작업에 이론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알튀세르, 1991:82). 알튀세르는 단순한 인간의 집합이 사회를 만든 다고 보지 않는다. 메커니즘을 유지하게 하는 개인이 있으며,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가 지금의 사회를 가능하게 했으며 나아가 국가 형성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이데올로기로 의해 가능했다.

> 개인들이 하나의 사회로서의 사회에 대해 맺고 있는 구체적,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관계를 구성하는 제 효과의 형태로 그것이 생산될 수 있을 정도로, 즉 사람들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들의 생활, 사업, 행동, 태도, 기능 등을 사회적으로 그 속에서 수행하게 되는 이데올로기의 물신성의 효과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만 한다(알튀세르, 1991:82).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에 주체를 구성하는 기능을 부여한다(진태원, 2011:94). 개인은 자유로운 주체로서 선재하지 않으며 그 반대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와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 개인들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체들로서 '호명되거나', '불러내'지며 호명은 강력하게 혼합된 인정과 동일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야고스, 2015:127). 알튀세르에 따르면 주체들은 자의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힘들다.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통념 속에 자신을 형성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푸코는 권력 관계가 특정 유형의 정체성을 생산해 내는 방식에 주목한다. 그가 말하는 통치기술은 규율권력, 생명권력이다. 권력관계가 주체를 생산해 내는 방식에 주목한다. 권력의 작동을 국가 장치로 보는 알튀세르와는 다르게 개인도 권력의 작동에 공조한다고 보았다.

푸코는 정체성은 권력과 개인간의 타협과 상호 작용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권력이 오직 위계적 관계의 표식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담론은 단순히 어떤 것을 위하거나 혹은 반대하지 않고 끊임없이 야기하며 다층요소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야고스, 2012:131).

> 요컨대 성에 대해 행사되는 아주 미세한 온갖 폭력, 성을 수상쩍은 듯이 바라보는 모든 시선, 성의 가능한 인식이 말소되는 모든 은닉 장소를 광범위한 권력의 독특한 형태와 연관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에 관한 담론의 풍부한 생산을 다양하고 유동적인 권력관계의 장(場)속에 잠그는 것이 중요하다(푸코, 1990:11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결과적으로 푸코는 권력을 특권의 행사가 아닌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발생하는 생산적 네트워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푸코, 1978:26).

푸코는 특히 동성애를 예로 들어 지배 관계를 설명한다. 즉, “성적 정체성이 이해되는 지배적인 방식이 비자연적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데에 보다 분명하게 개입”해 왔다(야고스, 2015:127). 섹슈얼리티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자질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문화적 범주-그리고 단순히 권력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의 효과-라는 점을 강조한다(야고스, 2015:129).

> 성과 쾌락에 대한 권력의 관계가 퍼져 나가고 증가하고 육체를 물들이고 행동에 스며드는 것은 바로 주변적 성생활의 격리, 강화, 공고화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권력의 이 돌출부에는 분산된 성생활이 나이, 장소, 취향, 습관의 유형에 따라 곤충처럼 채집되어 핀으로 고정된다. 권력의 확대로 인한 성생활의 확산, 이 국지적 성생활들 각각에 의해 개입의 표면을 부여받는 권력의 증대가 분명히 감지된다. 이와 같은 연쇄는 특히 19세기부터 무한한 경제적 이익에 의해 보장되고 대체되는데, 경제적 이익은 의학, 정신의학, 매춘, 포르노그라피의 매개 덕분으로 쾌락의 분석적 확산과 동시에 쾌락을 통제하는 권력의 증대로 이어졌다. 쾌락과 권력은 서로 상쇄되지도 서로에게 등을 돌리지도 않는다. 쾌락과 권력은 서로 뒤쫓고 서로 겹치고 서로 활성화한다. 쾌락과 권력은 복잡하고 확실한 자극과 선동의 메커니즘에 따라 서로 얽힌다(푸코, 1990:60).

이런 권력의 측면은 저항의 영역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였다. 노동의 착취와 재분배는 물론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있는 권력망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담론에 의해 형성된 근대적 주체성이 권력망의 효과라고 보는 푸코의 주장은 이후 레즈비언과 게이 그리고 뒤이어 퀴어운동과 학문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어 왔다(야고스, 2015:129).

근대적 주체에 대한 20세기에 왕성했던 사상가들의 비판적 논점은 현재에도 퀴어이론의 핵심적 근거로 자리 잡고 있다. 백승진(2014:241)은 후기구조주의의 해체이론에 근거해 퀴어의 반정체성 정치학은 정상적인 것, 합법적인 것, 지배적인 것과 대립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반정체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들 즉 ‘수행성’, ‘불확정성’, ‘다양성’, ‘변하기 쉬움’, ‘유동성’, ‘고정성 없는’, ‘일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인', '불확실한', '고정되어 있지 않은'과 같은 '해체하기' 의미가 퀴어이론에서 자주 사용되며 "이런 용어의 의도적인 사용은 주체 개념을 제한하고 범주화해 일반화시킨 결과에 따른 사회현상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한다.

시우(2018:87)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개신교인, 남성, 비장애인, 수도권 거주자, 시스젠더, 이성애자, 중산층, 한국어 화자 등 특권적인 위치를 점유한 소수만이 추상적 보편성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추상적 보편성을 갖는 사람을 '정상이다',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이다', '특수하다'라고 명명된다.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체계와 규범에서 비켜났으며, 인간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존재, 재생산 경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 성적 차이로 환원되어 추상화될 수 없는 존재로 담론화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퀴어한' 존재들이라고 명명하는 자본과 권력 작동에 의해 주변화 되고 특수화되는 주체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지배 담론에 대한 저항, 사회 제도적 조건의 불평등은 계속해서 정치적 실천에 대한 요구와 결부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오늘날 '퀴어 정치학'은 개인이나 소수에 의해 우발적 사건이기 보다 장기적 투쟁으로 끌고 간다. 루인(2015:99-100)은 '괴물을 보호하라'에서 퀴어 정치학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퀴어를 지배 규범과 불화하는 정치학으로 보았다. 이는 지배 권력을 탐문하고 그것과 다투며 권력이 끊임없이 비규범적 존재를 재생산하는 작동 장치를 문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정체성 정치라기보다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역할을 부여하는 권력 작동 자체를 문제 삼는 정치학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이성애 규범성을 구성하는 성적 욕망관계, 실천,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전복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것"(김보명, 2018:260)이며 그 자체를 유지하려는 권력에 맞서는 투쟁으로 본다. 이것은 레즈비언 게이 정치학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퀴어이론은 게이·레즈비언 운동에 대한 대안으로 혹은 사회적 약자의 영역에 맴돌던 개인을 저항의 주체로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사 퀴어이론 부상이 사회운동의 특성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변화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됨과 동시에 부정적인 시각도 나타났다.

영미권을 중심으로 발달한 퀴어이론이 민족-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밖의 국가들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퀴어이론 내에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국주의적 퀴어이론의 경향에 대한 우려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 한때 미셸 푸코가 성애의 기술 논의에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자신의 해체적 저술에서 원시적 해방, 고삐 풀린 죄악, 그리고 정체성이나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들의 장소로 표현한 동양(오리엔트)은, 이제 억압과 도착이 동시에 존재하는 장소를 상징하며, 서구식 정체성이 바로 자유의 새로운 현장이 되었다(푸아, 2016:96).

서동진(2012)은 섹슈얼리티를 생산하고 분할하는데 작용하는 힘을 민족-국가라는 현실적인 가상으로 보았다. 섹슈얼리티는 무엇보다 개인을 주체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

> 어떤 민족의 성원이 아닌 개인이 없다는 것은 곧 성정체성에 분배되지 않은 개인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서동진, 2012:265-266).

따라서 퀴어이론이 보편적인 해방 이론을 지향함과 동시에 민족화함으로써만 섹슈얼리티가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은 퀴어에 관한 이론 역시 민족-국가라는 지역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서동진, 2012:266). 결과적으로 축제를 지역 역사·문화의 관계 속에서 형성하고자 했던 제주퀴어문화축제의 실천을 한국형 퀴어이론 형성의 맥락에서 분석하려는 것은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자스비르 푸어(Jasbir K. Puar, 2016)에 따르면 현재 퀴어이론과 섹슈얼리티 연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봉착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답이 요청된다. 즉 오늘날의 죽음 정치적인 상황은 “신체, 욕망, 쾌락, 촉감, 리듬, 공명, 질감, 사망, 질병, 고문, 통증, 감각 그리고 처벌 등”에 역점을 두는 제국의 메타 이론에 기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정치” 상황에서 퀴어이론과 섹슈얼리티 연구도 그 둘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양과 그 밖의 나라로 나누어진 퀴어이론 내 이분법은 또 다른 제국주를 양산한다고 푸어는 말한다. 따라서 퀴어주체와 비퀴어 주체의 이항 대립이 지니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고, 퀴어를 교차성과 동일성 패러다임에 저항하는 퀴어배치의 하나로 재명료화하는 것이 퀴어이론과 운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 퀴어의 지배적 대형과 공모성과 우발성을 확인하여 이의 제기, 저항,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재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퀴어'정치의 운동적 계기들

1960년대 미국은 반동성애가 공식적으로 가능했다. 동성애를 병리적으로 치료 가능하다는 흐름을 따라 성소수자들은 전기고문을 당해야 했으며 공공의 영역에서 제거되어 갔다. 동성애자들이 유일하게 동료와 애인을 만날 수 있던 곳은 몇몇 게이바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술집 중 '스톤월 인'이 있었다.

1969년 6월 28일 새벽에 경찰이 '스톤월 인'을 습격해 손님들과 종업원들을 체포했다. '스톤월 인'은 주로 가난한 유색인종 동성애자들, 집에서 쫓겨난 젊은 동성애자들과 드랙퀸들 같은 밑바닥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었다. 심지어 흐르는 물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주류면허가 없어 항상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다. 그날도 경찰들은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말로 바에 있던 사람들을 농락했다. 손님들의 성별, 신분을 확인하고자 욕실,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남자로 분장한 여성, 드랙퀸, 종업원, 미성년자들을 우선 체포하려 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군중은 이전과 달랐다고 한다. 경찰의 동성애 혐오적 발언과 폭력적 진압과정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군중들의 반격으로 인해 경찰들은 막다른 골목에 갖혀 있던 상황을 전투경찰의 투입 이후에야 마무리되었다. 스톤월 인 사건 이후로 게이 해방운동이 많은 추동력을 받음과 동시에 그 당시 형성되던 대항문화운동과 맞물리면서 중앙 집중적 권력과 지배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집단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야고스, 2015:59).

스톤월 인 사건 몇 주 뒤에 뉴욕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해방전선(Gay Liberation Front)를 결성했다. 이들은 기존의 '점잖은' 동성애자 모임에서 언급하지 않는 주제들을 다루며 파격적인 운동방식을 선보였다. 1969년과 1973년 사이에 미국의 동성애자 조직은 두 배로 성장했다. 1970년 10월에는 런던의 동성애자해방전선이 미국 동성애자 해방전선의 정치를 바탕으로 설립되기도 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오늘날 스톤월 항쟁은 성소수자운동의 역사적 기점으로 남아있으며 매년 6월이면 그날의 저항정신을 기리는 '퀴어퍼레이드'가 전세계적으로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첫 시작으로 현재도 계속해서 퀴어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 퀴어 맥락이 가장 자주 인용되는 예는 에이즈의 유행으로 생성된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비난이 들끓던 1980년대 미국의 상황이다. 80년대 초반 미국에서 에이즈가 처음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이 질환이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초기에 발견된 환자들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들이었으며 바이러스의 존재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4.03.15.). 그 결과 한때 에이즈는 '동성애자 암', '동성애자 역병'으로 불렸다. 때마침 정권을 잡은 보수적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정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 신종 질환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홍보했다. 이러한 정치 전략은 70년대를 지나는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LGBT 인권 운동의 기운을 빼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 됐다(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4.03.15.).

당시 에이즈는 생의료적 담론 안에서 문제화되었다. 동성애자는 재생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리적 존재로 분류되어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성소수자들의 성적 실천이 강조되었으며 동성애를 일종의 죽은 운명으로 여기는 끈질긴 오해들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 반대하여, 정체성을 본질로써 보기보다 친화성의 측면에서 재고하는 많은 에이즈 행동주의의 연합 정치(Saalfeild and Navarro, 1991, 재인용)와 레즈비언과 게이 남성뿐만 아니라 양성애자, 성전환인, 성노동자, 에이즈 감연인, 보건 종사자, 게이의 부모와 친구도 포함하는 연합 정치가 나타났다. 이로써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에이즈에 대한 지배적인 묘사에 저항하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에 성소수자 당사자 외 개인들도 동참하게 되었다. 이는 전염병학, 과학적 연구, 공중보건, 이주 정책을 둘러싼 평행-교차적 투쟁 안에서의 권력 작동에 대한 전통적 이해 방식의 재고를 뜻했다(야고스, 2012:150).

에이즈 위기 이후 자신을 새로운 주체로 재구성해야만 했던 서구 게이들의 삶이 사건의 반향 속에서 새롭게 정립하도록 이끌었다(서동진, 012:272). 그에 따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새로운 탈중심적 운동과 정체성을 고착화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서 퀴어가 두드러지게 된다(야고스, 2012:153). 결과적으로 퀴어운동은 동성애 운동이 정치적 공세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저항의 의미를 되찾고 공동체 형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에 부상하게 되었다.

퀴어운동은 현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서구의 근대적 이분법을 비판했다. 권력과 권력관계를 탐구하는 탈근대의 시대는 선험적이거나 목적론적 지향성을 추구할 수 없는 시대로 받아들여졌다. 필연적으로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개인을 가능하게 했다. 개인은 인간의 근본적 진리로부터 기인하지 않으며 그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해석 가능해지기 때문에 관계론적 특징을 갖는다(이승원, 2009). 그리고 관계론적 사회 구성원은 개인과 공동체의 결합 형태와 성격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요구했다.

그러나 후기구조주의는 우리를 없음, 차이, 파편화, 수사학 등의 낯선 장소에 남겨 둔다(벤튼, 2014:287). 비판 기준이 부재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적 허무주의와 상대주의로 치우치게 될 가능성을 갖는다(서영표, 2015:142).

> 차이를 찬양하는 형태의 탈구조주의는 다문화주의, 즉 일종의 정치적 상대주의나 우리가 앞에서 윈치의 저작에 연결했던 것과 유사한 그러나 최종적인 분석에서는 윈치가 피하고자 애썼던 입장 - 즉, 우리는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으며, 오직 차이를 즐겨야 한다는 - 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즐김을 독일의 국가사회주의(나치)의 문화나 여성 할례를 실행하는 사회의 문화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논의대상이 될 '있음'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도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홀로코스트를, 또는 여성이나 소수인종 억압을 비난할 수 있는가를 알기는 어렵다. 우리가 탈근대주의(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탈구조주의(후기구조주의)의 진리나 도덕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비난하는 위계체계가 우리가 제안하는 그것보다 더 나쁘다거나 더 억압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단지 그것들이 다를 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벤튼, 2014: 291).

이승원의 경우 "'저항'이 더욱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생산해내고, 나아가 저항의 수준을 넘어서 보다 나은 정치질서 혹은 공동체 구성을 위한 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안적 정치실천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연대', 그리고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보다 성찰적인 반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았다."(이승원, 2009: 224)

오늘날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주도·참여 주체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다양한 개인과 이해집단들이 특정한 저항의 국면에서 어떻게 하나의 커다란 정치세력 혹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연대성'(solidarity) 개념이 재고찰 되고 있다고 보았다(이승원, 2009).

기존의 경계 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배제된 채 그 일상의 삶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탈구적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그들을 다시 인식지평으로 끌어내서 새로운 정치적 과제 또는 해방의 정치로 담론적 재구성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퀴어운동은 탈구를 경험한 개인들을 모으고 정의(justice), 민주주의(democracy), 인권(human right)이라는 보편적 이데올로기의 체계에 균열을 내고 있다(서영표, 2015:138). 이는 새로운 정치를 향한 필요를 분출시켰으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게이·레즈비언 운동, 여성 운동진영에서 퀴어운동의 부상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앞선 기대에 못지않게, 다양한 형태로 주변화 된 성적 신분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불안과 격분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야고스, 2015:15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Ⅲ. 한국 퀴어운동의 양상

푸코, 알튀세, 라캉 등 후기구조주의자들을 통해 주체는 '부재하는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 이론화 되었다. 그 이론적 맥락에서 탄생한 퀴어는 일방적, 관습적 또는 일차원적 주체를 생산하는 이데올로기와 권력에 반하여 나타났다. 그 결과 후기구조주의적 퀴어의 맥락은 현대의 정체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과 정체성 집단은 정체성 정치가 가져온 분리주의와 고립화 결과에 부딪히고 복합적으로 에이즈 위기에 봉착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게이,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등 부차적 집단으로 간주되던 주체들은 자신을 정체화하는 데 주력하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퀴어'라는 개념은 그 새로운 가능성을 함축한다. 따라서 운동의 양식은 개인을 법적, 정책적, 관념적으로 종속적 지위에 위치시키는 제도화된 패턴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프레이저가 말하는 변혁적 개선책의 모습을 띤다.

여전히 집단 정체성의 가시적 인정을 요구하는 운동들이 있다. 이러한 틀에서 벗어난 사회운동조차 정체성 정치의 패러다임에 국한된 채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앞으로 주로 다루게 될 퀴어문화축제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퀴어는 정체성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의 확장 과정을 내포한다. 결과적으로 주체를 구성해내는 권력 전반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사회 정의를 이루고자 힘쓴다.

## 1. 한국 동성애 운동과 퀴어운동

한국 성소수자 이슈가 공적 영역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으나 이전부터 '동성애'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에 대한 정의, 인식, 양태 등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변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해솔(1999: 363-364)에 따르면 1970년대에 이미 <여자택시운전사회>라는 여성 중심의 성적 소수자 모임이 조직되었다고 한다. 이 조직은 198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이나 존재하면서 성전환 수술 이후의 주민등록 변경과 같은 법적 인정을 위해 집단 민원을 청구하기도 하고, 법적 제도 밖에서 동거 및 결혼, 이혼 등을 하고, 자녀를 입양하거나 재산을 상속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여섯 명의 남녀 동성애자가 1993년 12월에 의기투합해 <초동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가 마침내 탄생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후 남성 동성애자들은 이듬해 2월 7일에 한국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를 설립하였고 그로부터 9개월 후, 11월 27일에 여섯 명의 레즈비언이 뜻을 합쳐 한국 여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를 발족하였다. 1994년에 힘겹게 틔운 인권운동의 싹은 그 다음 해인 1995년에 더 큰 줄기로 성장했다. 1995년 4월엔 연세대학교 동성애자 모임 <컴투게더>, 서울대학교 동성애자모임 <마음001>이 차례로 조직되었고 9월엔 고려대학교 동성애자모임 <사람과사람>이 발족했다(한채윤, 2011:106).

이병량(2010)이 제기한 것처럼 식민지 시대였던 1920~1930년대에도 존재했던 동성애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1990년에 와서야 다시 대두되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아무튼 한국의 성적 소수자운동은 1990년대 이후 시작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의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의 성격은 이전의 성적소수자운동과 달리 매우 지적이고, 문화적이고, 좀 더 과감하게 이야기하자면 엘리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병량, 2010:276). 그 결과의 한 부분은 퀴어영화제와 퍼레이드를 포함한 퀴어문화축제로 나타났고, 또 다른 부분은 소위 명문대로 지칭되고 있는 몇몇 대학을 시발로 결성된 대학별 성적 소수자모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 양상이 성적 소수자 문제를 매우 특징적인 방식 즉 인권 문제로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이병량, 2010:276).

198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대도시 지역에 형성된 하위문화는 동성애적 욕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별, 성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정의될 수 있음을 뜻한다(서동진, 2005:75). 이에 반해 제프리 윅스나 미셸 푸코는 동성애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욕망은 보편적이지만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주체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Weeks, 1985,1989; 푸코, 1994)라고 보았으며 그 결과 동성애적 욕망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일관된 상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가정하는 새로운 성적 주체가 등장할 때 마침내 그를 동성애자라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서동진, 2005:74).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한국 사회는 1990년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복잡한 섹슈얼리티 담론들이 성정체성의 형성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퀴어운동의 영역과 많은 부분 교차한다. 한국 게이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가 20주년을 맞이하여 단체 연혁을 기록하면서 글의 말미에 이례적으로 ‘퀴어’ 용어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는 퀴어가 갖는 ‘전복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함이었다.

> ‘친구사이’가 꿈꾸는 앞으로의 활동은 기존에 우리가 알려온 이야기들을 “퀴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긍정할 수 있는 힘과 메세지를 주는 새로운 대안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친구사이, 2011:99).

그간 퀴어운동이 보여준 운동방식의 독창성은 정치적인 것이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 주었다. 또한 이미 주어진 거대 집합적 주체들의 권리에 목표를 두기보다 모인 이들의 ‘연대’를 만드는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해 나갔기에 오늘날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

퀴어운동의 가장 큰 행사는 일 년에 한 번에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다. 퀴어문화축제는 미국 ‘스톤월 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서울의 퀴어퍼레이드를 첫 시작으로 부산, 대구, 제주, 전주, 인천, 광주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최근 2년 이내에 생겨났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현재 한국에서 퀴어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퀴어를 향한 관심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퀴어 이슈는 공적 영역에서 다루지 않았던 성이라는 의제를 수면 위로 올렸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성을 향한 인간의 호기심과 욕망이 지금의 퀴어운동을 부상시켰다. 반면 반동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애 시위를 주도하는 보수 기독교집단의 혐오발언과 거짓 정보 전달로 인한 사건 사고가 뉴스에 전해지면서 대중들이 퀴어 이슈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논란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인터넷의 발달이었다. 인터넷 발달은 퀴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그밖에도 오늘날 교차성 연구의 필요가 높아진 탓에 퀴어이론은 페미니즘, 장애학, 노동운동, 난민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문적·활동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2. 한국의 반퀴어 운동의 양상: 퀴어문화축제 반대 운동 사례

'퀴어'정치의 출현은 퀴어의 의미가 정체성의 의미와 함께 '비정체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후기 구조주의를 거치면서 퀴어는 고정된 주체의 신화에서 벗어나 '부재하는 주체'로 의미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고정적이고 강요된 주체를 형성하는 규율과 권력에 대항하는 퀴어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오늘날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조화를 가능하게 했는데, 퀴어는 사회적 약자들을 정체성이라는 분화된 집단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반면 그들을 과두정권에 대항하는 저항 공동체 즉 연대해야 할 대상으로 끌어들인다. 따라서 오늘날 퀴어는 차이의 인정을 요구하는 운동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퀴어이론의 발전, '퀴어'의미의 확장과 변형은 확실히 관찰 가능하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변화는 더디다. 여전히 퀴어는 소수의 성정체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동성애 세력의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반대 진영에서 퀴어한 존재들을 재현하는 수사는 단연 퀴어를 불경한 성생활을 향유하는 자, 쾌락만 쫓는 자,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의 순리를 파괴하는 병적인 존재, 가족을 파괴하는 자 등 도착적 성정체성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보수 기독교 내 반동성애 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퀴어운동의 부상과 함께 반동성애 세력 또한 퀴어운동 못지않게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9월에 있었던 인천퀴어문화축제 당시 상황은 현재 퀴어인들과 반동성애 세력의 대립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그 결과 인천시 동구가 성 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관내 개최를 사실상 불허했다고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전했다. 인천 동구는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퀴어문화축제를 열고자 했던 동인천 북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100면 확보'와 '보안 요원 300명'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추가로 단체 실존 증빙서류와 집회 신고 확인서 사본도 함께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런 통보는 행사 예정일까지 여유가 있는 데도 특정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한 후 조직위에 통보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준비를 요청한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다. 하루 만에 보안요원과 주차장을 마련하라는 것은 사실상 성 소수자 행사 개최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지역 정서상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축제 장소 사용을 불허한 것이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동구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직위는 "동구청이 계속해서 행사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입장을 견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경찰 측에 집회신고를 하는 등 축제를 추진하는데 무리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예정대로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고 행사는 진행되었다(허프포스트코리아, 2018.08.17.). 예정대로 9월 8일 인천 북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는 열렸다. 그러나 행사 전날부터 광장에서 진을 치고 있던 반대세력에 의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 조직위는 10일 기자회견에서 "기독교 단체 등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7일 밤부터 광장 안에 여러 대의 차량을 세워 점유하고 밤샘 기도회를 열었고, 8일 새벽 6시에 조직위가 광장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200여 명이 광장을 무단 점거하고 무대 설치를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속속 집결하면서 그 숫자는 1000명(경찰 추산)으로 늘어났다(한겨레, 2018.09.1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 인천 북광장 반대세력에 고립되어 있는 축제 참가자들

반대세력에 둘러싸인 퀴어축제 참자가자들은 먹지도, 화장실을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광장에 고립되었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퍼레이드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이 추산한 퍼레이드 참석자가 300명에 불과했다. 반대세력의 방해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 축제 공연 출연자를 태운 차량을 펑크 냈고 차량 앞에 드러누웠다. 축제 깃대를 부러뜨리고 광장에 드러눕는 등 곳곳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목격됐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반대집회 참가자 7명을 연행했다.

그럼에도 계속된 욕설과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해서 참가자들을 도발했고, 끊임없이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 심기용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아래와 같이 그날의 상황을 전했다.

> “성소수자를 향해 성관계 시 포지션을 직접 언급하면서 더럽다고 말하거나, 포주한테 잡혀갈 것이라는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며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차별적 발언, 원색적 비난, 성희롱도 축제 참가자들에게 큰 심리적 위협이 됐다”고 말했다(한겨레, 2018.09.11.).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반대 집회 참석자들의 반대이유는 동성애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성애는 후천적 병이며, 문란한 성문화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전염 시킨다는 논리가 대부분이었다.




<그림 2> 인천퀴어문화축제 반대 인천퀴어반대 대책본부 기자회견(출처: 글로벌이코노믹스, 2018.08.22.)




<그림 3> 인천퀴어문화축제 반대 시위 (출처: 개신교연합방송, 2018.09.1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4> 인천퀴어문화제 반대 현수막 (출처: 시사인천, 2018.09.06.)

인천뿐만 아니라 필자가 참석했던 전주, 대구, 서울, 제주의 경우도 동일한 반대 시위가 있었다. 가까운 곳에서 퀴어문화축제와 대적하는 기독교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행사장 가까운 곳에는 아래와 같은 플래카드가 걸렸고 피켓을 들고 행사장 바로 앞까지 와서 축제를 방해했다.




<그림 5>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 현수막 (출처: 직접 촬영, 2018.06.2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6> 제1회 전주퀴어문화축제 반대 피켓 (출처: 직접 촬영, 2018.04.07.)

<그림 5>와 <그림6>에서 보듯이 퀴어문화축제 반대 현수막 및 피켓은 에이즈 위험을 강조하면서 성소수자들을 전염병을 옮기는 집단으로 폄하한다. 에이즈로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에 대해 동성애자들을 범인으로 몬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결혼률 감소와 성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도 성소수자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3. 제주지역의 퀴어운동

### 1) 제주퀴어문화축제

#### (1)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퀴어문화축제

대부분의 퀴어문화축제는 부스 행사, 지지 공연 및 연대 발언, 자긍심 퍼레이드(행진), 에프터 파티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빼는 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경우 총 7일에 걸친 행사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 > 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전체일정

| 날짜 | 내용 | 시간 | 장소 |
|---|---|---|---|
| 07월13일 | 프리즘 오브 아트 PRISM OF ART: 인권, 문화 예술 속에서 피어나다 | 19:00-21:0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 |
| 07월14일 | 서울퀴어퍼레이드 | 11:00-20:00 | 서울광장 |
| 07월15일 | 레인보우 드레스 공식 촬영 | 12:00-17:00 | 장소 미정 |
| 07월19일-22일 | 한국퀴어영화제 | 개·폐막식 20:00 | 대한극장 |

자료: 서울퀴어문화축제 안내 책자, 2018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는 '서울퀴어퍼레이드'이름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구성 내용은 지역의 퀴어문화축제 즉 보통의 퀴어문화축제의 형식을 따랐다. 서울퀴어퍼레이드 당일인 7월 14일 서울광장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4 > 2018년 7월 14일 서울퀴어퍼레이드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
| 부스 행사 | 11:00-19:00 | 100여 개의 부스와 대형 '레인보우 드레스'전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
| 무대 행사 | 14:00-16:30 | 공연 |
| 퍼레이드 | 16:30-17:50 | 퍼레이드 진행 |
| 축하 무대 | 18:30-19:30 | 공연 |

자료: 서울퀴어문화축제 안내 책자, 2018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18년 제10회 6월 23일 동성로 광장에서 열렸다. 보통의 퀴어문화축제 형식을 유지한 한편 한 달 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 10주년 헌정 특별전을 진행했다.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5 > 2018년 대구퀴어문화축제 전체일정

| 날짜 | 시간 | 프로그램 |
|---|---|---|
| 06월 22일-07월 22일 | | 대구퀴어문화축제 10주년 헌정 특별전 |
| 06월 23일 | 13:00~ | 대구퀴어문화축제 |

자료: 대구퀴어문화축제 안내 책자, 2018

6월23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6> 2018년 6월 23일 대구퀴어문화축제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
| 부스 행사 | 13:00-17:00 | 다양한 부스의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
| 무대 행사 | 16:00-17:00 | 지지공연, 연대발언, 개회식 등 |
| 자긍심 퍼레이드 | 17:00 | 동성로 광장 일대 퍼레이드 진행 |
| 애프터 파티 | 퍼레이드 이후 | 축제 이후 파티 진행 |

자료: 대구퀴어문화축제 안내 책자, 2018

2018년 4월 7일 제1회 전주퀴어문화축제는 전주 풍남문 일대에서 열렸으며 당일 행사로 진행됐다.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7 > 2018년 전주퀴어문화축제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
| 부스 행사 | 11:00- | 다양한 부스의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
| 식전 행사 | 13:00- | 지지공연, 연대발언, 개회식 등 |
| 공연 시작 | 14:00- | 지지 공연 |
| 퍼레이드 | 16:30-18:00 | 풍남문 일대 퍼레이드 진행 |

자료: 전주퀴어문화축제 포스터, 2018

그런 면에서 제주퀴어문화축제의 몇몇 프로그램은 유달리 눈에 띈다. 2017년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는 10월 27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8 > 2017년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
| 부스 오픈 | 11:00-12:00 | 다양한 부스의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
| 공연 및 잔치 | 12:00-14:00 | 공연, 퀴어 **노래자랑, 국수나눔** |
| 버스킹 | 14:00-15:30 | 자유발언[2] |
| 행진 | 15:30-19:00 | 신산공원 일대 퍼레이드 진행 |
| 에프터 파티 | 19:00 | 축제 이후 파티 진행 |

자료: 제주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2018.09.26. 기준, 필자 강조)

2018년 제주퀴어문화축제는 9월 29일 동일하게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개최되었다. 2017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있다면 29일과 30일에 퀴어연극제 제주 공연을

2) 버스킹의 정확한 내용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개인이 주도하여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원에 분산되어 있는 정자에서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김기홍 위원장 말고는 참가자가 없었다고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진행했다는 것이다.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9 > 2018년 제주퀴어문화축제 전체일정

| 날짜 | 시간 | 프로그램 |
|---|---|---|
| 9월 29일 | 12:00-18:30 | 제주퀴어문화축제 |
| 9월 29일 -30일 | 20시, 15시 | 퀴어연극제 제주 공연 |

자료: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자원봉사 사전 안내 자료, 2018

9월 29일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10 > 2018년 제주퀴어문화축제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
| 부스 오픈 | 12:00~ | 다양한 부스의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
| 축하 공연 | 12:00-13:00 | 초대 가수 및 댄서 공연 |
| **장퀴자랑** | 13:00-14:30 | **노래자랑, 무지개떡 나눔** |
| **평화의 서클댄스** | 14:30-15:30 | **서클 댄스 워크숍** |
| 지지 공연 | 15:30:-16:00 | 드랙공연 |
| 행진 | 16:30-18:00 | 신산공원 일대 행진 진행 |
| 닫는 마당 | 18:00-18:30 | 행진 후 닫는 모임 |

자료: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자원봉사 사전 안내 자료, 2018.(필자 강조)

눈에 띄는 특징은 1회의 노래자랑과 국수 나눔, 2회의 장퀴자랑, 무지개떡 나눔, 서클 댄스 워크숍이다. 보통의 퀴어문화축제가 공연자를 미리 섭외해 음악 및 댄스 공연을 연다.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리 섭외된 공연자들이 있었지만 즉석에서 노래 경연도 열었다. 그것을 노래자랑과 장퀴자랑[3]이라고 부른다.

또한 제주 잔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음식 나눔 형식으로 1회에 비건 국수를 2회 차에는 무지개떡을 준비해 축제 참석자들과 함께 나눴다. 2회 때는 다 함께 모여 강강술래처럼 손을 잡고 발을 맞춰 함께 춤을 추는 서클 댄스 시간을 가졌다. 서클댄스는 제주도 내 평화 관련 행사에서 종종 선보였던 퍼포먼스다. [4]

3) 장기자랑과 퀴어를 합쳐 만들어진 단어다.

4) 국제생태마을 연대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단체 넥스트젠에듀케이션은 서클댄스(Sacred circle dance)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인류와 지구, 우리 자신과 근원 사이의 간극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에너지를 1976년 생태영성 공동체 핀드혼(스코틀랜드)에서 버나드 버진이 춤을 통해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전세계에 확산되었다. 단순하고 상징적인 몸짓으로 추는 서클댄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 서로 다른 입장과 경험을 넘어 공동체적인 영성과 일체감, 조화로움, 우리의 본질을 느끼곤 합니다(넥스트젠에듀케이션 페이스북. 2018.11.3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7> 서클댄스 광경 (출처: 제주퀴어문화축제 페이스북, 2018.09.29.)

이런 행사들은 축제에 참석하는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제주도의 잔치문화에서 비롯되었으며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잔치'라는 용어를 실제로 1회 포스터에서 사용하였다.




<그림 8>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포스터 (출처: 제주퀴어문화축제 공식 블로그, 2017.10.2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도의 잔치문화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잔치를 포함한 제주도의 의례는 다른 지역과 차별점을 갖는데 혼례가 대표적인 예다. 제주도 혼례는 “전날의 가문잔치, 혼인 당일의 잔치, 신부 집에서의 사돈잔치와 신랑 집에서 사돈잔치까지 4일에 걸쳐 양가에서 세 번씩 합계 여섯 번 잔치(향토문화전자대전, 검색어 혼례)”를 한다. 현재는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결혼식이 반나절을 넘지 않는 육지의 비해 여전히 하루 종일 결혼식을 열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를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어 아직도 동네잔치 형태로 치러지던 의례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A는 제주퀴어문화축제의 컨셉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제주 결혼식 혹은 장례식 같은 동네잔치 컨셉을 잡았어요. 1기와 2기 때는 동일하게 비건 국수와 무지개떡을 나눠 먹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을 정해 에코·페미·퀴어·지역잔치의 컨셉을 내세웠어요(인터뷰 A, 2018.12.06.)

그러나 처음 잔치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조직위는 밝혔다.

> 처음엔 돈이 없어서였어요.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국수 나눔, 떡 나눔은 큰돈이 들지는 않아요. 무대에 여러 사람을 세우고 하면 돈이 꾀 드는데, 그거에 비하면 돈이 안 들죠. (그에 비해 잔치 형식은) 만족도도 높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것을 의도하기도 했어요. 작년에도 길거리에서 막걸리 주냐며 물어보던 분들, (축제 장소에) 와서 왜 축제 하냐고 난리 피던 아저씨가 같이 춤추고 있었고, 올해는 동네 할머니들 오셔서 물건 값을 깎기도 했다고 합니다(김기홍 인터뷰, 2018.11.29.).

재정 부족이 초래한 구성적 변화였지만 제주도민들에게 여전히 익숙한 잔치문화를 살린 결과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제주퀴어문화축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참가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참여는 참가자들에게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했다. D는 다른 지역퀴어문화축제 참석 당시는 “집단적 독백”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감정이 느껴져 외로웠다면 제주지역에서는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

> 같이 춤추고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제주퀴퍼의 정체성이요. 모인 장소가 공원이었어요. 다같이 둥글게 모여서 하나같이 퀴어얘기 하면서 “우리같이 해요” 하는 연대가 활발했어요. 몇몇은 명함을 주면서 “이런 걸 연구하고 있고 같이 해봐요” 하며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제주에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겠구나 싶었어요. 모이는 사람이 적어도 제주 운동가들은 같이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 (제주도에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육지에서는 긍정적인 느낌은 못 받았어요. 사무적이고 오피셜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다들 살아보자고 하는 일인데...(제주퀴어문화축제의 경우 사무적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려가 많이 되어 있다싶었어요. 가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빼놓는 사람 없어야 한다는 축제의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잘 없었어요. 굉장히 평화적이에요(인터뷰 D, 2018.12.05.).

조직위원과 참여자 및 공연자 등 역할에 따라 나뉘는 위치가 주는 위계감을 없애기 위해 단상을 쌓지 않는 노력도 보였다. 이는 재정 상황뿐 아니라 참여를 늘리고 연대를 형성하려 했던 조직위원들의 고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어떤 부스에서 참여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전체가 참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축제 기획 자체에서 어떤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김기홍 인터뷰, 2018.11.29.)

인터넷 언론 <고함20>에 실린 한 참가자는 인터뷰를 통해 제주퀴어문화축제 참여 후 다른 지역 퀴어문화축제와의 차별성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비하면 규모는 많이 작았다. 작은 광장 한가운데의 조형물에는 퀴어 플래그 만국기가 알록달록 걸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 40여 개의 부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양성애 가시화 주간이라며 바이 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래그가 담긴 스티커나 카드를 배포하는 부스들이 많았다. 부스들 사이의 작은 무대는 특별한 장치 없이 음향 설비 정도만 있었다. 단상과 함께 위계도 사라진 그 무대 공간에서는 조직위가 준비한 개회식 및 공연뿐 아니라, 참가자들이 직접 나오는 '장퀴자랑'도 진행됐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제주퀴어문화축제만의 행사는 '서클댄스' 말 그대로 참가자들이 모여 원을 만들어 돌면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탭을 밟기도 하고 잔잔한 음악에 맞춰 땅을 짚고 일어서 하늘로 손을 뻗기도 했다. 서로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누니 비를 맞으면서도 기분은 뽀송해졌다(다정, 2018.10.03.)

참여를 북돋아 자연스러운 연대를 형성하려고 했던 조직위원들의 바람처럼 참여자들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참석 후기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올린 참가자는 서클댄스를 추면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굉장히 뭔가 평화로운 느낌이었고(중략) 평화적 의미를 갖는, 서로 너무 어색하지만, 우리가 함께 퀴어라는 이름 하나로 모였다는 것을 연대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조금 다를 뿐이다. 손을 잡으면서 연대를 쌓았어요(이게이게삼식이, 2018.10.01.).

다른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제주지역의 잔치로서 축제를 확대 개방하고자 했다. 이는 퀴어문화축제 참여자가 퀴어에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편견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잔치의 의미처럼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지위, 성별, 정체성 등에 상관없이 환영받을 수 있었다.

잔치의 의미에서 축제는 참석한 자들을 보다 능동적인 관계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본 축제도 여느 축제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이 서로를 무심히 스쳐 지나가거나 최소한의 의사소통만을 주고받으며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허기를 달래고,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온기를 느끼고, 장기자랑으로 서로의 진솔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참여자들은 상호작용하였다. 단발성 축제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사회적 가치 패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미 있는 점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퀴어 당사자 혹은 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상관없이 참가자 간의 신뢰를 형성했다는 데 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A는 제주퀴어문화축제를 구성해 가면서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하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설명 한다.

> 공연을 보는 수동적인 관객 보다는 축제를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 시간이기를 바랬어요. 1기 장기자랑을 보며 놀랐던 점은 장퀴자랑 참가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자신의 장끼를 뽐낸 것. '아, 이 공간이 안전한 장소'라고 느껴서 그러는 건가 하는 놀라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글로, 자신의 정체성을 춤이나 노래로, 부모님과 함께 참여해서 부러움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어떤 가수의 공연 보다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만들어낸 장퀴자랑 시간이 즐거웠어요.
>
> 2기 때는 테라 님과 서클댄스를 함께 하는 것을 기획하고 섭외 했어요. 서클댄스는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투쟁 때도 종종 하던 것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간단한 동작의 반복과 음악으로 하나 됨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를 차분하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고 언어가 달라도 가능한 시간이었어요(인터뷰 A, 2018.12.06.).

여느 지역과 비교해 적극적 참여자가 많았다는 다수의 의견 외에도 H의 경우 여전히 참여자가 한정돼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도 했다.

> 노래자랑보다는, 자기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좀 더 주제와 장르가 열린 프리젠테이션 시간이면 좋겠어요. 시를 낭독할 수도 있고요(인터뷰 H, 2018.11.29.).

축제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축제의 경험을 체화해 내고 그 결과 퀴어한 이들과 사회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퀴어문화축제의 목표이며 실천이다. 실제로 제주도내 인권강사로 활동하는 H의 경우 2018년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와 참가자의 경험이 일상생활에서 묻어남을 느낀다고 전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아동 청소년 친구들과 인권 수업할 때 아이들이 제주도 퀴어축제 뉴스를 봤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동시에 저 역시 제가 그곳에 있었고 그 경험을 아이들과 직접 나눌 때 아이들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덜 낯설어하는 듯했어요(인터뷰 H, 2018.11.29.).

### (2) '탐라는 퀴어': 제주도의 역사와 퀴어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슬로건은 '탐라는 퀴어'였다. 김기홍 조직위원장은 제주의 소리 '퀴어난 도새긴 또 퀴어난다'는 기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여기서 퀴어난다는 것은 '튀어났던', '도망질했던'의 의미이며 도새긴 돼지의 제주방언이다. 잘못된 버릇과 어긋난 행위를 빗대어 경계할 때 하는 제주도 속담이다(제주의소리, 2018.07.07.).

돼지는 통시(우리) 담을 허물고 튀어나가기 시작하면 자꾸 튀어난다. 버릇이 생기면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튀어난다. 마당을 가로질러 골목을 벗어나 천방지축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니기도 한다. 막상 어렵게 찾아도 마소처럼 고삐를 채우지 않는 놈이라 막대기로 몰고 오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이런 낭패가 없다. 결국엔 그런 돼지는 기르기 힘들어 내다 팔거나 해 처분해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돼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은 사람도 매한가지다. 버릇을 잘못 들이면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자꾸 되풀이해 주위로부터 지탄받기 일쑤다. 술 마시고 주정 부린다거나 여자에 홀려 노상 바람피우는 게 다 그러한 것이다(제주의소리, 2018.07.07.).

이 기사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에서는 퀴어라는 단어가 이전부터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그 형태와 의미를 빌려 조직위는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개회 선언 기자회견에서 위의 속담을 동음이의어 대구를 사용해 다시 재구성했다.

퀴어신디 톨아진(ㅌ·ㄷ아진) 사름이랜 ᄒᆞ멍(ㅎ·멍) 제주에서 퀴어나게 멘드는 제주는 이제 어실거우다!

(퀴어한테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주에서 튀어 나가게 만드는 제주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제 없을 겁니다!)(제주퀴어문화축제 공식 블로그, 2018.08.31.)

'탐라는 퀴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탐라'를 '제주'로 읽을 때 확인 가능하다. 탐라를 제주로 대체해서 읽어본다면 '제주는 퀴어'이다. 제주가 어떻게 퀴어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 탐라는 지금 제주라 불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불렀던 이름입니다. 나중에는 강제로 건너 땅이라는 뜻인 제주라는 이름이 붙었고, 유배지이자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근대에서 일제의 제국주의 확장을 위한 군사기지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외부의 폭력에 디아스포라를 겪어야 했습니다(제주퀴어문화축제 공식 블로그, 2018.08.31.).

제주도가 지닌 자연적, 환경적 특수성은 주민들 나름의 자생적 정체성을 유지시켜 왔다. 그에 반해 정치적으로는 본토 국가에 병합되어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독립 부족국가가 갖고 있던 주체성을 잃는 과정도 있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은 제주사회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현길언, 2001:12).

그리고 여전히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강한 통치를 받고 있다. 그로인해 주민과 행정당국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1980년대는 중앙정부 주도로 관광활성화를 목표로 난개발이 이뤄져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주민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밖에 모슬포, 송악산, 탑동 등에서도 주민의 의견이 수렴하지 않고 진행되었던 관주도의 사업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강정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놓고 정부 대 주민들 그리고 활동가들은 오랜 싸움을 해야 했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성산 제2공항 건설 계획도 일방적인 국토부 시행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있어 제주사회에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볼 때 '탐라는 퀴어'라는 슬로건은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권력을 행사하는 중앙관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위는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전히 이 땅(제주도)은 디아스포라의 땅입니다. 예멘에서 나와야만 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은 여기서도 안전을 위해 흩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제2공항 추진으로 삶의 터전이자 고향을 잃을 뿐 아니라 조장된 갈등으로 인해 성산 공동체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림로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했더니 계속 난개발을 하던 그대로 숲 파괴와 도로 공사로 답해 갈등을 조장해 제주 공동체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해군과 정부는 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국제관함식을 조건으로 사과한다고 하여 갈등을 조장해 강정 마을 공동체는 다시 흩어지고 있습니다(제주퀴어문화축제 공식 블로그, 2018.08.31.).

제주도의 역사로부터 채득된 주변으로서의 자기 인식은 때때로 독립의 열망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매번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정신만은 제주인의 삶 깊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비단 주변화 되었다는 피해의식이 전부는 아니었다.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권력을 향한 저항정신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퀴어한 제주도민에게 퀴어의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D는 앞서 밝힌 제주퀴어문화축제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성소수자라는 소수자성과 지역 거주민들의 소수성이 만나 '퀴어'로 접합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았다.

제주도라는 내부 식민지에서 도민의 삶을 살면서 느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연대와 평화를 모토로)가자, 정확하게 짚고 가자라는 마음이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있었던 것 같았어요. 지금의 제주 방향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방향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인터뷰 D, 2018.12.05.).

제주도에 가해졌던 국가폭력들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의 '퀴어'는 그런 국가폭력에 대해 저항하여 평등한 세상을 꿈꾸자고 제주도민에게 호소한다. 척박한 제주땅에서 이여도라는 상상의 섬을 꿈꾸던 선조들처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퀴어한 섬 제주도에서 퀴어라고 튀어나가지 않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런 제주도 퀴어운동의 문제의식은 프레이저가 부정의의 실질적 개선책으로 제시한 변혁적 개선책과 맞닿아 있다. 제주도가 주변적 성격을 갖기까지의 과정은 오늘날의 섹슈얼리티의 역사와 상응하는 부분이 많다. '정상성'이라는 중심 권력에 의해 '비정상'으로 주변화 되는 과정을 섹슈얼리티 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이러한 공통된 성격을 적극 수용해 퀴어한 제주도민에 호소했으며 결과적으로 동질감을 형성하고 보다 많은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썼다.

### 2) 제주의 '퀴어'정치

#### (1) 제주도 퀴어운동의 전개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의 시발점은 2017년 4월 13일 군 인권센터에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 군인 색출 및 처벌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은 뒤였다. 이후 관련 이슈들이 쏟아졌으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성소수자 이슈가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017년 5월 25일에 군형법 92조의 6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찬반 논의가 거셌다. 제주도 마찬가지였다. 제주도 내의 모 활동가가 이 개정안 발의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동성애 혐오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퍼져 제주도내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제주 정의당의 한 활동가는 사건을 지켜보면서 퀴어문화축제 개최 의사를 밝혔다.

> 지인을 통해 몇 번 눈인사 한 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어서 좋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최근 동성애 관련하여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글을 SNS에 올리고 있어 마음이 착찹 합니다. 그분의 그 사명감에 찬 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
> 다만,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정의당이 이번 대선을 변곡점 삼아 퀴어운동, 퀴어정치를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운동이 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소망은, 서울, 대구에 이어 제주에서도 퀴어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행동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억압당하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깨달음을 얻기에 참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리다고 아이를 배제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참 좋았습니다. 정말 정말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 키우는 분들은 이번 여름에 꼭 한번 아이와 함께 퀴어축제에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 이효성 페이스북, 2017.05.30.).

이후 댓글을 통해 제주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그렇게 참여의 의사가 있는 사람들과 정의당과 녹색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첫 번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구성되었다. 2017년 10월 24일, 정의당 제주도당에 성소수자 위원회가 정식으로 인준되었다. 전국의 정의당에서 인천에 이은 두 번째 결과였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우리의 약속>이라는 약속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축제 구성원이 약속문을 기본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우리는 성 역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나이, 성별,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연애지향에 따른 고정관념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2.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며,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서로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 연애 지향을 존중하며 그에 따른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4. 서로의 종교, 정치성향에 대한 통념이나 선입견을 상대방에게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상대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 연애지향을 밝히지 않습니다.
6. 우리 축제는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7. 타인을 소외시킬 수 있는 대화는 지양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 위의 약속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며 모든 상황은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공식 블로그, 2017.09.28.)

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성소수자의 아우팅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부터 심혈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차이의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약속문을 통해 활인할 수 있었다. 다름이 외부로부터 평가되고 고정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축제를 만들고자한 조직위원회의 취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다양성을 강조하며 열린 제1회 축제는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진행되었다. 우려가 무색하게 축제는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큰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이후 2018년 3월에는 제주대학교 교내 첫 퀴어동아리 '퀴어움QUTE'이 생겼다. 자체적으로 교내 성소수자들의 요구에 의해 탄생했지만 교내활동은 물론 제주지역의 퀴어운동과 연대하여 활동을 계획 중이다. 퀴어움의 회장 D는 "2019년 동아리의 목표는 제주 전역으로 퀴어운동을 확장해 가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퀴어움은 가장 먼저 제주퀴어문화축제와 연대하여 2018년 5월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앞 도로를 중심으로 제주대 퀴어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바닥에 적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제주대 내 퀴어인들의 존재를 알리고 퀴어 인식 확대에 힘을 모았다.

'우리 그냥 사랑하게! 혐오 말고', '우리는 어디에나 있다', '연대는 혐오보다 강하다', '다름≠틀림', '성소수자가 제대에도 있다' 등 다양했다. 특히 당시 학교 축제인 대동제 진행 기간과 맞물려 축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발언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9> 제주대학교 퀴어동아리 퀴어움QUTE 교내 퍼포먼스 (출처: 직접 촬영, 2018.05.29.)

청소년의 퀴어문화축제 참여도가 높았던 제주퀴어문화축제를 계기로 축제 이전부터 존재하던 비공식 청소년 퀴어모임들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청소년이 중심이 된 제주지역 청소년 퀴어 모임 '가람 실기'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공식적으로는 제주도내 첫 번째 청소년 퀴어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제주 지역에서 꾸준히 성소수자 가시화와 인권 향상에 힘쓰고 있다.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각종 연대 활동으로 다양한 집단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표 11>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사업 내용

| 날짜 | 사업 내용 |
|---|---|
| 2017.10 ~ | 성소수자 관련 날에 가시화를 위한 홍보 활동 |
| 2018.01.30. | 제1기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해단 및 2기 준비 선언 기자회견, 제주 성소수자 인권 간담회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 |
|---|---|
| 2018.02 ~ | 제주도청의 인권 담당자와 함께 제주지역 인권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차별적 문제 대응 및 피드백 |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 후보자 및 정당들에 대한 질의 답변과 기자회견을 통한 성소수자 인권 가시화 활동 |
| | 지방선거 혐오 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제주 지역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대응 활동 |
| | 각 지역 퀴어 축제 연대 |
| 2018.05.17. | IDAHO 위원회의 브로슈어 및 포스터 번역 및 배포 |

자료: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자원봉사 사전 안내 자료, 2018

<표 12>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지역사회 및 각종 연대 활동 내용

| 날짜 | 연대 활동 내용 |
|---|---|
| 2018.02.28. | 전국 인권활동가대회 참석 |
| 2018.03.31. | Jeju V-Day 캠페인 참석 |
| | 4·3, 세월호, 노동계, 사회 이슈 등 사회 전반 연대 활동 |
| 2018 ~ | 제주지역 성소수자의 삶을 알기 위한 구술 기록 활동 |
| 2018.07.21. | 아트세닉 커뮤니티 파티에서 발표 |
| 2018.07.31. | 제주에서 퀴어와 관련한 개념 및 상황에 대한 강의 및 커뮤니티 형성 활동 |

자료: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자원봉사 사전 안내 자료, 2018

### (2) 제주 녹색당의 '퀴어'정치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성소수자 의제는 제주 녹색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소수자 당사자인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여 '퀴어'정치라는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2008년 4·3 총선 당시 레즈비언임을 밝히고 진보신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한국 최초 성소수자 후보 최현숙 이후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선거운동은 없었다. 한국의 상황에서 제주 녹색당의 시도는 눈여겨 볼만 하다.

제주 녹색당이 성소수자 이슈를 의제로 내세우기까지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이 노력한 한국 녹색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제주 녹색당 안재홍 사무처장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성소수자 인권을 의제화하는 것은) 녹색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해요. 성소수자 때문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은 의제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모든 녹색당이 공유하는 생각이에요. 꼭 선거기 때문에 퀴어를 의제로 가져갔다고 하기보다 (녹색당이) 쭉 해오던 맥락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가능했다고 봐요(안재홍 인터뷰, 2018.12.04.)

제주 녹색당의 사례에 앞서 전국동시지방선거 녹색당의 10대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녹색당 공약은 다음의 공동정책을 초석으로 삼고 있다.

하나. 더딘 정치개혁, 평등한 주민참여로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하나. 탈핵, 핵발전소 감시와 정보공개, 지역에너지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하나.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나.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지역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하나. 살아있는 생명의 존엄을 보장하겠습니다
하나.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난과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시민의 건강한 한끼를 보장하겠습니다
하나. 미세먼지 감축,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를 위한 인권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하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를 보존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하나.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하나.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녹색당 온라인 홈페이지, 2018.05.18.)

녹색당은 제6회, 7회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성소수자를 위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위의 공통 정책에 근거해 제6회 지방선거 당시 녹색당의 성소수자 정책공약은 아래와 같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3>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녹색당 성소수자 정책

| | 주요정책 | 세부공약 | |
|---|---|---|---|
| 1 | 지자체 조례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명시와 인권교육 제도화 | 1 | 인권조례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 명시 |
| | | 2 | 성소수자 차별예방 및 인권교육 제도화 |
| 2 | 지자체 인권위원회를 통한 성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와 공론화 | 지자체 인권위원회에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 소위원회를 두고 성소수자 인권 문제 공론화 | |
| 3 |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 성소수자 청소년 쉼터 및 지원 정책 | |
| 4 | 혐오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 혐오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12.01. 기준)

구체적 공약을 펼쳤던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정당 10대 정책에서는 성소수자를 특정한 공략이 많지 않았다. 보건 복지 및 여성 분야의 공약과 통합되어 비중이 적었다.

<표 14>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녹색당 성소수자 정책

| | 주요 정책 | 세부 공약 |
|---|---|---|
| 1 | 혐오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혐오 폭력, 혐오 표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 2 | 퀴어문화축제 공식 후원 및 참가 | 지방정부가 서울, 대구, 부산, 전주, 제주, 광주 등에서 열리고 있는 퀴어문화축제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12.01. 기준)

제주 녹색당은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아이와 함께 한 가족,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성별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성별중립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공약을 ‘다양성을 옹호하고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주 녹색당이 직접적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피력하지는 못했지만 비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표 후보로 나온 김기홍 후보는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그리고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성중립 화장실은 물론, 차별금지 조례 제정, 성소수자종합지원센터 설치, HIV 신속 검사 및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연계한 출장검사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도지사 후보 고은영, 비례대표 후보 오수경, 김기홍은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로 활동하였으며 김기홍의 경우 현재도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렇지만 녹색당의 '퀴어'정치는 당사자를 성소수자에게 국한시키지 않았다. 퀴어를 소수자성 또는 소수자를 억압하는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의미 짓고 선거 전반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제주도민들이 중앙 권력에 의해 타자화 되어 온 역사에 대한 호소로 나타났으며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했다.

> 제주의 위치는 소수자와 같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여느 약자와 다름없이 제주의 정치적 역사적 위치는 실종되었고, 제주의 문화와 공동체는 강제로 깨어졌습니다. 저처럼 존재만으로도 음란하다고 볼리는 성소수자처럼 존재만으로도 불경하다거나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곳입니다.
>
> - 2018.04.09. 김기홍 비례대표 후보 출마의 변
> (출처: 고은영의 녹색정치 페이스북 2018.11.16.)

> 저희 부모님은 농민입니다. 저의 동생은 세입자입니다. 저의 이웃은 성산읍(제2공항 예정부지) 주민이고, 저의 친구는 비혼 청년이고, 한 부모 가장이기도 하고, 성소수자이기도 합니다. 저의 남편은 노동자이고, 저의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
> - 2018.04.09. 오수경 비례대표 후보 출마의 변
> (출처: 고은영의 녹색정치 페이스북 2018.11.16.)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공약은 관위주로 진행되는 제주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도민을 타자화하는 기성정치에 대한 저항에 집중되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어렵게 하는 기존의 선거정치 개편과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정치를 약속했다. 도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개발에 반대 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며 제주국제자유도시(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JDC) 해체와 성산 제2공항 백지화를 외쳤다.

특히 강정 해군기지, 성산 제2공항 및 난개발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와해되었던 현실과 무분별한 관광 개발로 인한 관광객의 포화 결과 발생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 하락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안했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제2공항 반대 촛불 집회에 참여하였고 선거유세 마지막 날은 하루 종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 일대에서 선거유세를 진행했다.




<그림10> 제주 녹색당 지방선거 출마선언 모습 (출처: 제주일보, 2018.05.31.)

최종적으로 제주 녹색당은 4.87%의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기 위해 필요한 정당득표율 5% 기준을 넘지 못해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도의회에 진출을 목표로 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기념할만한 결과를 냈다.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고은영 후보는 3.53%의 지지율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치고 3위를 기록했다. 또한 제주 지역 진보정당의 득표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의 진보정당의 득표율 정의당 11.87%, 녹색당 4.87%, 노동당 1.83%, 민중당 1.60%을 기록, 모두 합치면 20.17%였다(미디어제주, 2018.06.14.).

녹색당 정당득표율의 경우 성산읍, 안덕면[5]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

5) 비례대표1번 오수경 후보는 안덕면 출신이었기에 높은 득표율을 올릴 수 있었다고 녹색당 자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6]. 선거 후 녹색당은 이러한 결과를 자체 평가를 통해 정리 해 본 결과, 선거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했던 성산 제2공항 반대 운동의 영향과 녹색당이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제2공항 전면 백지화 공약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선거 평가 워크숍 정리, 2018.06.27.). JDC해체를 공론화 한 전략도 도민의 표심을 움직이는 변수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밖에도 여성의 선거참여 비율이 비교적 높고 환경의제에 많은 관심을 갖는 제주도민의 성향이 녹색당의 공약과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 김기홍은 성소수자유권자의 표가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보기도 했다.

녹색당이 '퀴어'정치를 전면에 내걸고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제주퀴어문화축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초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는 녹색당 당원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당시 조직위원 12명 중 8명이 녹색당, 3명이 정의당이었다. 축제 이후 김기홍 조직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녹색당에 가입하여 퀴어운동을 이어갔다. 녹색당은 제주의 퀴어운동과의 계속 연대를 이뤄내며 뜻깊은 지방선거 결과를 얻었다.

퀴어의 이론적·운동적 성격과 밀접한 관계하에 녹색당이 지방선거 전면에 내세운 JDC해체, 성산 제2공항 백지화 공약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중앙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을 연결시켰다. 이는 제주퀴어문화축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배권력을 향한 투쟁의 의미와 맞닿아 있었다.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 가시화에 힘써 사회적 편견을 없애려는 취지와 함께 성소수자를 배제시키는 지배 규범에 대한 저항을 말해왔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타자화되는 여성, 장애인, 난민 모두의 연대를 촉구해 왔었다. 이러한 제주의 퀴어운동 상황이 녹색당의 정책과 맞물려 복합적으로 연대의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앞선 결과는 2018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꾸준히 성소수자 문제가 정치 후보자들이 처리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

---

평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개표현황(읍면동별), [제7회] [지방선거]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확인 가능.2018.12.0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다는 입장을 토론회에서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로부터 질타를 받았으며 퀴어 유권자들을 낙담시켰다. 이후 꾸준히 성소수자 이슈는 정치진영에서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로 남아 후보자들과 정당들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제주도도 다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지방선거 가까이에 생겨난 제주퀴어문화축제가 정당과 결합 할 수 있었고 그 시기가 잘 맞아 떨어졌다. 이와 같이 녹색당의 발빠른 대처 전략이 '퀴어'정치를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

그밖에도 제주 녹색당의 높은 득표율을 설명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다. 제주사회는 2018년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상황에 놓여있었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 이후 4·3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일었다. 지난 세월동안 진상조사는 커녕 유가족들을 좌우로 갈라 분란만 일으키던 세력에 대한 문제를 촉구하는 시기기도 했다.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시점에 녹색당이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기성정치 타파 및 제주도 주체성 회복에 대한 정책 전략은 도민의 민심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몇 년 사이에 도민들의 정치활동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녹색당의 '퀴어'정치 타이밍이 시의적절 했기에 가능 할 수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Ⅴ. 결론

성소수자를 향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 가시화되는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성소수자 이슈는 퀴어문화축제, 대통령 후보 TV토론회, 드라마, 영화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내 성소수자 이슈 또한 연일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이 같이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공론장의 형성은 한국 사회의 놀라운 발전이다.

그 결과 「군형법」제92조의 6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및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성소수자 차별금지 반대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인권위는 시설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 방지를 권고하였고, 서울시의회는 학교 안 혐오표현 규제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혐오표현을 통한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27일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을 불허한 사건에서, 법무부의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였다. 그밖에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률의 제도화가 이루지고 있다(SOGI 법정책연구회, 2018).

한편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필요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법·제도 측면에서는 결정적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17년 보수 개신교계 및 반성소수자 단체는 보수 정치집단과 합심하여 시행 중에 있는 인권 관련 법률·조례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4년 6개월마다 전 세계 국가의 인권정책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기 위해 열리는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최종 권고문을 2017년 10월 9일에 발표했다. 유엔은 한국 사회의 인권 후퇴 상황을 심히 우려하였으며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 철폐를 위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폭넓은 권고를 요청했다.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정치적 싸움으로 비화되어 번번이 실패했다. 2018년인 현재까지도 국회통과가 불명확한 상태로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기성정치의 벽에 부딪혀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소수자들의 반란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서 제주퀴어문화축제와 제주 녹색당의 '퀴어'정치는 오늘날 유의미하다.

먼저, 제주퀴어문화축제는 퀴어운동의 영역 확장을 위해 제주도민과 연대하기 위해 힘썼다. 그 전략으로 제주도의 지역성, 즉 지정학적으로 '퀴어한' 위치에 놓여있는 제주도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었다. 본토에 종속되어 발생했던 착취와 억압의 역사, 물리적 거리가 만들어 낸 유배의 역사가 있다. 오늘날에는 제주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난개발로 삶의 터전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한 군사기지 건설로 군사주의 역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로인한 피해는 오롯이 제주도민들에게 전가되어 오늘날까지 대를 이어 아픔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는 뿌리 뽑지 못해 2018년을 사는 지금에도 남아 제주도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생산수단, 권력, 물리력으로부터 소외되어 공식적 정치의 장에서 힘이 열세했던 제주도민의 삶, 그 역사는 권력의 불평등,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탈구의 순간을 여러 번 맞이했다. 그럼에도 저항적 연대로 발전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제주지역의 퀴어운동은 국가 폭력에 반대하고 자원과 정보를 독점하는 소수집단에 저항하는 퀴어연대 구성을 시도했다. 도민들을 분열시켜온 강정 해군기지, 성산 제2공항 건설, 난민 이슈 등을 실례로 퀴어 맥락에서 제주사회를 해석하여 제주 도민의 동의를 얻는데 힘썼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을 역임한 고은영, 김기홍, 오수경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제주 녹색당 도지사,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앞선 퀴어운동에 힘입어 다시 한 번 저항적 연대를 모색하기에 이른다. 여성정치, '퀴어'정치, 청년정치를 앞세워 선거를 진행한 제주 녹색당은 녹색당 자체 공약과 더불어 퀴어운동에서 보여 주었던 제주의 퀴어한 위치를 알리는데 힘썼다. 그 결과 녹색당은 이례적인 득표율을 거두며 지방선거를 마칠 수 있었으며 제도권 정치로의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퀴어’정치를 외치기까지 제주지역의 진보정당의 협력이 큰 힘이 되었다. 최초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제안한 이도 정의당 활동가였으며 이후에는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의 진보정당 당원들의 지지와 심리적 ·물리적 응원이 있었다. 특히 녹색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주 녹색당은 성소수자 이슈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당적이 없던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당원으로 영입하여 퀴어를 적극적으로 당내 의제로 가지고 갔다. 그 결과 ‘퀴어’정치의 이름으로 성소수자 당사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하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었다.

녹색당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퀴어운동은 진보정당의 적극적인 응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열린 2018년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함에 있어 제주도의 진보정당은 스텝으로 참여하여 진행을 돕거나 필요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지지 현수막을 통해 연대했다. 제주지역 진보정당은 그들의 제주퀴어문화축제 후원과 참여를 단순한 문화행사의 보조로 여기지 않았다. 정의의 문제, 인권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로 보았다. 하마터면 정체성의 정치라는 프레임 안에서 문화적이거나 부차적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퀴어운동 이었다. 그러나 제주지역 진보정당의 정치적 연대는 퀴어운동이 궁극적 목표하는 ‘퀴어’정치를 가능하게 했다. 성소수자들의 부정의 개선은 물론 참여 동등의 문제로까지 의제를 끌고 가 ‘동등한 참여’라고 하는 지위 획득 요구에 힘쓴 제주지역의 진보정당은 오늘날 제주지역의 ‘퀴어’정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주지역의 퀴어운동은 퀴어이론의 급진성 즉, 고정되지 않은 전투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인 경합을 추구하려는 퀴어이론의 존재 이유를 적극 사회 운동에 결합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제주 사회문화에 대한 역사적 통찰은 그간 지리적, 정치적 주변화로 겪어야만 했던 고질적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기에 적합했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주 녹색당이 이뤄낸 제주도민과의 연대 및 진보정당의 연대는 ‘퀴어’정치의 가능성을 한껏 높여주었다.

연대의 형성이라는 성과와 함께 성소수자 문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적 혹은 상징적 부정의 개선과 사회경제적 부정의 개선을 동시에 요구했던 제주도 퀴어운동은 정체성 정치를 적합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정체성 정치의 발전적 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재분배 문제에 소홀하다는 정체성 정치의 약점을 보완하였으며 세계 곳곳에서 우경화 되어 나타나는 정체성 정치의 흐름에 반하는 정치 행보를 보여 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참고문헌

## 국내문헌


강내희. 2000. “한국 근대성의 문제와 탈근대화” 『문화과학』 22: 15-40.

강성호. 2001.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위기와 ‘포스트 모던’ 역사학” 『전남사학회』 16: 165-186.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사회』 32: 42-90.

김보명. 2018. “급진-문화 페미니즘과 트랜스-퀴어 정치학 사이” 『페미니즘 연구』 18(1):229-265.

김영돈. 2000. 『제주도 제주 사람』, 민속원.

김지림 외. 2018. 「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 」, SOGI법정책연구회.

김혜숙. 1999. 『제주도 가족과 궨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나영정. 2015. “한국 성소수자 운동과 제도화의 역설” 『진보평론』 63: 228-257.

두건, 리사(Duggan, Lisa). 2017. 『평등의 몰락』 한우리·홍보람 역. 현실문화.

라클라우, 에르네스토., 샹탈 무페(Laclau, Ernesto and Chantal Mouffe). 2013.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후마니타스.

릴라, 마크(Lilla, Mark). 2018.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 필로소픽.

루인, 2015. “괴물을 보호하라” 『인물과사상』 212: 96-109.

믹다시,마야., 재스비어 K. 푸아(Mikdashi, Maya and Jasbir K. Pua) 2016. “퀴어 이론과 영구적인 전쟁” 『문학과사회』,이진화 역 29(4): 119-134.

박이은실. 2011. “[빌헬름 라이히, 『성정치』, 중원문화, 2011] 성정치, 성(性, sexuality)에 관한 여전히 유효한 논의들” 『진보평론』 48: 279-298.

——— 2014. “퀴어 이론가-이브코스프스키 세즈윅” 『여/성이론』 30: 133-165.

백승진. 2014. “게이에서 퀴어로” 『현대영미어문학회』 32(1):235-258.

벤턴, 테드., 이안 크레이브(Benton,Ted and Ian Craib). 2014. 『사회과학의 철학』 이기홍 역. 한울 아카데미.

브라운, 캐스., 개빈 브라운, 제이슨 림(Browne,Kath., Gavin Brown and Jason Lim). 2018. 『섹슈얼리티 지리학』 김현철 외 역. 이매진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동진·임종훈, 2016. “장소 정체성을 위한 도시 공공공간 유형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37: 90-99.

서동진. 2005. “인권, 시민권 그리고 섹슈얼리티-한국의 성적 소수자 운동과 정치” 『경제와 사회』 76: 66-85.

——— 2006. “성적 소수자는 민중이다, 시민이다-날것의 삶과 정치적인 삶” 『황해문화』 50: 337-386.

——— 2011. 서동진, “알튀세르와 푸코의 부재하는 대화.” 진태원 편. 『알튀세르』. 그린비.

——— 2012. “퀴어이론의 이율배반” 『여/성이론』 27: 262-272.

서영표·영국 적록연구그룹. 2010. 『사회주의, 녹색을 만나다』 서영표 역. 한울아카데미.

——— 2017. 『불만의 도시와 쾌락하는 몸』. 진인진.

——— 2012. “도시적인 것, 그리고 인권?” 『마르크스주의 연구』 9(4):68-102.

시우. 2018. “퀴어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문화과학』 93:73-92.

——— 2018b, 『퀴어 아포칼립스』. 현실문화.

알튀세르, 루이(Althusser, Louis).「『자본론』으로부터 마르크스의 철학으로」, 김진엽 편, 『자본론을 읽는다』.두레. 82쪽.

야고스, 애너매리(Jagose, Annamarie). 2017. 『퀴어이론 입문』 박은식 역. 도서출판 여이연.

윤수종. 2012. “성소수자와 욕망의 정치” 『진보평론』 52: 191-223.

이병량. 2010.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와 정책적 대응”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0-283.

이승원. 2009. “연대의 정치적 필요성과 이론적 조건: 헤게모니 실천을 통한 연대와 민주주의의 통일” 『문화과학사』 60: 219-231.

——— 2016. “‘운동’이라는 호흡으로 ‘정치’를 살리려는 이론적 시도” 『진보평론』 70: 385-396.

——— 2018.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철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 『시민과세계』, pp.1-29.

이진화. 2016. “지구적 적대의 퀴어한 재배치를 위하여” 『문학과사회』 29(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35-141.
조주현. 2018. 『정체성 정치에서 아고니즘 정치로』. 계명대학교 출판부.
최일성. 2006. “포스트모더니즘에 내재된 서구중심주의 비판” 『정치사상연구』 21(2): 99-121.
친구사이. 2011. “'친구사이'와 한국 게이 인권운동” 『진보평론』 49:60-99.
푸아, 재스비어 K.(Pua, Jasbir K.). 2016. “퀴어한 시간들, 퀴어한 배치들”. 『문학과 사회』 29(4): 88-118.
푸코, 미셸(Foucault, Michel). 1990. 『성의 역사, 1-앎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
——— 1994. 『감시와 처벌:감옥의 탄생』. 오생근 역. 나남.
프레이저, 낸시 외(Fraser, Nancy et al.). 2017.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게빈 올슨 역. 그린비.
한주희. 2015. “퀴어 정치와 퀴어 지정학” 『문화과학』 83:62-81.
한채윤. 2011. “한국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역사” 『진보평론』 49:100-128.
현길언. 2001. 『제주문화론』. 목석원.
홍태영. 2009. “세계화와 정체성의 정치”, 『국제관계연구』 14(1)143-169.

**국외문헌**

Ben-Moshe, L. 2011. "Disabling Incarceration: Connecting Disability to Divergent Confinements in The USA", *Critical Sociology* 39(3): 385-403.
Dean, Jodi. 1996. *Solidarity of Strangers: Feminism After Identity Poli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lkin, Lauren. 2017, "Chapter 1: Flaneuse-ing." pp.3-24 in *Flâneuse: Women Walk the City in Paris, New York, Tokyo, Venice, and London*. Farrar, Straus and Giroux.
Gibson-Graham, JK. 2006.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Gilmore, R. W. 2007, "Chapter 3: The Prison Fix in." pp. 87-127. *Golde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Gulag: Prisons, Surplus, Crisis, and Opposition in Globalizing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uar,Jasbir K. 2005, “Queer Times Queer Assemblages”, *Social Text* 23(3-4((84-85)):121-139.

Lau, Lasse., Mirene Arsanios, Zúñiga-González Felipe, Mathias Kryger, Omar Mismar. 2013. *Queer Geographies*, Museet for Samtidskunst, Roskilde, Denmark.

Lefebvre, Henri. 1996. *Writings on Cities*. translated and edited by Eleonore Kofman and Elizabeth Lebas. MA/Oxford/Victoria: Blackwell.

Mbembe, A., and Libby Meintjes. 2003. "Necropolitics, Public Culture." *Public Cluture* 15(1): 11-40.

Mouffe, Shantal. 2018. *For A Left Populism,* Verso.

Mountz, Alison. 2011. "The Enforcement Archipelago: Detention, haunting, and asylum on islands." *Political Geography* 30(3): 118-128.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New York: Bloomsbury Press.

Turner, John. 2016. *The prison Boundary*, Palgrave Macmillan UK.

Weeks, Jeffrey. 1985. *Sexuality and Its Discontents: Meanings, Myths and Modern Sexualitie*. Routledge.

——— 1989. *Sex, Politics, and Society: the regulation of sexuality since 1800.* Longman.

**웹사이트**

“잔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회, 집필자: 이상일, 1997. (검색 날짜: 2018.11.18.)

고은영의 녹색정치 페이스북: http://bit.ly/2QBSnDb

넥스트젠에듀케이션 페이스북: http://bit.ly/2R9GB2r

서울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http://sqcf.org/slogan

이효성 페이스북: http://bit.ly/2SWJvoi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퀴어축제 공식 블로그: https://jejuqcf.org/

## 기사

김강현 기자. “인천 첫 퀴어문화축제...강행 이유는”, 『시사인천』(2018.09.06.). http://bit.ly/2Erqlmx

김기홍 기자. “반대 많았던 제주 '첫' 퀴어문화축제, 이렇게 열렸다”, 『오마이뉴스』(2017.11.06.). http://bit.ly/2Ewz2w1

김종환 기자. “음란한 인천퀴어문화축제 불허한 인천 동구청 원칙과 소신 지킨 행정 눈길”,『글로벌이코노믹스』(2018.08.22.). http://bit.ly/2SZl35P

김지은 기자. “저학력 중하층 백인들의 반란…화이트 포퓰리즘의 등장”, 『한계레』(2016.11.10.). http://bit.ly/2EsRS6Z

뉴스1. “동구가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사실상 불허'하다”, 『허프포스트코리아인천』(2018.08.17.). http://bit.ly/2BumtxS

다정 기자. “가짜뉴스·불법촬영…제주퀴어문화축제가 그럼에도 무사했던 이유”, 『고함20』(2018.10.03.). http://www.goham20.com/57740/

민정훈. “외교보안연구소 2016년 미국대선 결과 및 특징”,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2016.11.11.). http://bit.ly/2Lvssr7

이유진 기자. “‘집단적 린치’, ‘일방적 테러’ 인천퀴어축제에서 무슨 일이?”, 『한겨레』(2018.09.11.). http://bit.ly/2rF8aSO

이정민 기자. “제주도민이 보여준 ‘3위 의미’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 『미디어제주』(2018.06.14.). http://bit.ly/2rJ1yD1

이정진. “이슈와 논점 ‘2016 미국 대선 결과’”, 『이슈와 논점』(2016.11.21.). http://bit.ly/2Br7QeS

박제이슨 기자. “에이즈는 예방될 수 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2014.03.15.). http://bit.ly/2EBw7CP

Newsbeat. “We know what LGBT means but here's what LGBTQQIAAP stands for”, *BBC* (2015.06.26.). https://bbc.in/2ClmQw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기타 자료**

제주 녹색당. “선거 평가”.(제주 녹색당 미공개 문서)

제주 녹색당. “선거 평가 워크숍”. 2018.06.27.(제주 녹색당 미공개 문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탐라는 퀴어> 자원봉사자 사전 안내 자료”.(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배포된 문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Abstract

## Possibility of 'Queer' politics
## - Focused on Jeju case

Bae, Jin hee,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est of 'Queer' which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nd the consequent changes in society. The number of the countries allowing same-sex marriage as well as of the countries legalizing homosexual are increasing. Many people are coming out regardless of their social positions and localities. Furthermore the social movements centering on 'queers' are growing. One of them is the Queer Culture Festival, which has continu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erms of the scale and scope of the Queer people's friendship and recognition.

Beginning with the 'Stonewall' which has been a symbolic event since happening as a resistance to the anti-homosexual forces in 1969, the Queer Culture Festivals have taken place around the world every June in commemoration of the day. Korea is no exception. The first Queer Culture Festival in Korea was the "Queer Culture Festival Rainbow 2000" held in Seoul in 2000. In 2009, the Queer Culture Festival was held in Daegu. In 2018, the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has reached 19th and the Daegu Queer Culture Festival has reached 10th.

Queer culture festivals expanded rapidly over the years. In 2017, the Queer Culture Festival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Jeonju, Jeju and Busan. Also it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Incheon and Gwangju in 2018. In 2019, the Queer Culture Festival will be held in Cheongju. Recently the books and academic papers on 'queer' also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he issue of the sexual minority had been a difficult question to the candidates of the main political parties. After the on-TV debate, several candidates had to additionally explain what they said about homo-sexual. It might be argued that sexual minority question is a criterion to judge the degree of democracy in relations to human rights.

Sexual minority movement is a kind of identity politics, which endeavor to construct the same identity. There is a danger that identity politics fail to build an united movement. If failing to build social solidarity, it is almost impossible to achieve what diverse minorities movements aspire. Without the solidarity, they cannot overcome political maneuvering and the public's neglect. In this sense, identity politics should include social justice and equal human rights, and then intermingle one another.

Today, queer theory paid attention to diverse fields of the social movements. Those who resist state violence including suppressing sexual minorities, and those who struggle against a tiny small elite monopolizing resources and information and so on, could be signified as diverse moments of queer movement. Queer politics might be symbolized as a broad church of movements resisting repressive power over the 'Queer' as well as resistant actions to sexual subordination

The Jeju Queer Cultural Festival has strived to involve various social movements within the 'queer' Along with the sexual minority in Jeju Island, Jeju residents themselves could be called 'queer' in that they have suffered from the state violence for a long time. The subordinate position of Jeju Island in Korea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sexual minority. There are common ground. In terms of campaign, the Festival employed traditional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ultures and customs as a way of communicating with local people.

The members of Organizing Committee of Jeju Queer Culture Festival were elected as the candidates of provincial governor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Jeju Green Party in local election in 2018. Each of them set up themselves as an representative of youth politics, women politics, and queer politics. All of them spoke loudly 'Queer Jeju', which meant a solidarity of Jeju people and diverse minority movements.

The Jeju Green Party failed to win governor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but gained significant votes. In addition, all together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that participated in the queer movement in Jeju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of votes among the 17 regional municipalities across the country. The progressive parties including the Green Party did not regard queer issues as confined to the cultural realm. Because it was seen as a problem of human rights and rights, they supported Jeju Queer Culture Festival and Queer politics of the Green Party.

The queer movement of Jeju Island actively used the theoretical meaning of queer. It has argued the need of fundamental change, but simultaneously has tried to form consensus with the local people. Th support for sexual minorities and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is demonstrating the possibility of 'queer politics' in Jeju Island.

**Keywords: Identity politics, Queer movement, Queer Culture Festival, Recognition Struggle, Jeju Island, Jeju Queer Culture Festival, Jeju Green Party, Solidar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